



2016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한(漢)의 경계,
패수는 어디인가?

2016.6.21 화 13:00~18: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6년 상고사 토론회

일정	시간	내용
【개회식】 사회 : 이성제 (한중관계연구소 고종세연구실장)	13:00~13:30	등록
	13:30~14:00	〈환영사·축사·기념촬영〉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 사 :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발표·토론】 사회 : 박선미 (한중관계연구소 고종세연구실)	14:00~14:30	• 발표 :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로 본 패수의 실제 위치
	14:30~14:50	• 토론 : 이후석 (송실대) - 요서지역 중국 군현과 패수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14:50~15:20	• 발표 : 박준형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 고조선 패수의 위치
	15:20~15:40	• 토론 :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요녕성의 훈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15:40~16:00 휴식		
【종합토론】 사회 : 공석구 (한발대)	16:00~18:00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7
• 축 사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09
• 발표 1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로 본 패수의 실제 위치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한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	17
• 토론 1	요서지역 중국 군현과 패수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이후석 (송실대)	71
• 발표 2	고조선 패수의 위치 박준형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89
• 토론 2	요녕성의 훈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10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단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다섯 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늘 우리 상고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축사를 보내주신 우당장학회 이종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조선은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여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마저도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고학 자료도 중국 국경 내이거나 혹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국내 젊은 학자들이 관련 분야를 천착하고 있고 연구업적도 제법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분들과 사회의 꾸준한 응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사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고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격의 없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고조선을 둘러싼 핵심 쟁점 주제 가운데 하나인 위만조선의 수도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조선과 한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는 ‘패수’의 위치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수는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학문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상상력은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바탕위에서 이루어 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을 통해 역사가 바로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하시고 토론을 맡아 주신 김종서, 박준형, 심백강, 이후석 선생님, 그리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공석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축 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난 3월 토론회의 이어 오늘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됨을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학술회의에서 뚜렷한 학문적 일치감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 논쟁의 쟁점을 들어 내놓고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는 국민적인 입장에서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호섭 이사장 취임 이래 대담하게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찬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대사는 아직도 상아탑 속 학문과 국민의 역사인식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SNS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강단사학이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대중을 피해 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함양하고 있는 역사인식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고대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곳곳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옛날 독립투쟁시대 선열들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정서가 국민들 품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단재나 백암같은 분의 역사학을 쳐들지 않더라도 독립군가를 보면 무엇이 그 정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11년 세워진 신홍무관학교 교가를 소개합니다.

“서북으로 흑룡태원, 남에 영절에/여러 만만 험험 자손 업어 기르고/동해 섬 중 어린 것들 품에 다 품어/젓 먹여 기른 이 뉘뇨/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우리 우리 조상들이라/그네 가슴 꿩의 피가 우리 핏줄에/찰찰찰 걸치며 돈다.

장백산밑 비단같은 만리낙원은/반만년래 피로 지킨 옛집이거늘/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 어맡기고/중 설움 받는 이 뉘뇨/우리 우리 배달나라의/우리 우리 자손들이라./가슴치고 눈물뿌려 통곡하여라/지옥의 쇠문이 온다. (후략) ”

이 노래 가사에는 고조선이나 고구려 고토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일투쟁과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염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원은 민족의 자주독립의식과 더불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는 고토를 되찾겠다는 단순한 욕망의 소리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이었고, 그런 야망은 아직까지 영토적 배타성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고토의식을 더욱 강한 소리로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평화는 가장 침략적이고, 1.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이 오데르 나이세 이동지역을 비롯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초연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에서는 동북공정을 만들고, 남에서는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인공섬을 만드는 그런 한(漢)족들의 팽창정책이 작용하는 한 동북아의 ‘평화의 집’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면 이것도 궁극적으로 동북아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국가사관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데 임나일본부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발끈한다고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최근 경희대 이모 연구교수는 이런 우리 국민의 자위적 감정을 ‘대륙 지향의 민족사관’이라 단정하고 일제강점기 “황국사관과 흡사하다”고 역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우익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소리입니까? 결국 이 분의 괴변은 반제독립투쟁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염원에 대하여 침을 뱉는 격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고대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소위 북한의 주체사관이란 괴물입니다. 북한의 고대사에 대한 초기의 연구성과는 김석형이나 이지린과 같은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로 자리잡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3년부터 단군릉을 만들고 평양을 민족의 중심지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완전히 꾸겨놓았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이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올바른 연구가 북한의 것을 옹기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단국대의 윤모 교수가 봉변당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교수의 학설에 재갈을 물리게 한 사람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연유로 인해서인지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이라는 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실감한 사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4년전부터 작은 시민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 아베의 우경화 정치를 소개하고자 고려대 김모 명예교수를 강연의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강연도중 하필이면 임나일본부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리더니 강연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중도에 퇴장하는 김교수를 향하여 어느 중년의 아주머니 한분이 문을 가로막고 “그걸 강의라고 했어..” 소리를 뻑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사인식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사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강연장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주최측은 청중들의 흥분된 질문을 피하고자 질문지를 받아 선택된 일부만을 답변하고 있고, 청중들은 왜 편파적으로 답변하느냐 항의 소동이 끈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공개강연은 주최측 의도와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아무런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학문이 국민대중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고,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역사학은 내우외환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이웃나라들의 역사왜곡과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논쟁으로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중심이 되어 중립적인 역사연구가 자리매김하는 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초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초연한 입장에서 하나하나 우리 역사의 길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도 역사정립작업의 돌계단을 하나 놓는 결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광복회 이사 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종 찬

〈일러두기〉

* 이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 2016년 상고사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고조선과 한(漢)의 경계, 패수는 어디인가?" 의 발표문을 모은 것입니다. 각 발표문에서 제시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점과 연구결과, 제안 등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재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표 1〉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로 본 패수의 실제 위치

김종서 (한국과 세계의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사람들의 모임)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로 본 패수의 실제 위치

김중서 (한국과 세계의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사람들의 모임)

중국의 동북공정을 도와온 한국고대사학계

역사 교육은 이웃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지배한 일본의 고토이니 수복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에 근거하여 한국을 강점하였었고, 수(隋)·당(唐)나라는 고구려 땅이 주나라 무왕이 봉한 기자의 땅이고, 한(漢) 3군(낙랑·현도·대방군)의 땅이니 중국이 수복해야 할 고토(古土)라는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였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언젠가 한국을 침략할 때 고토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행태 또한 북한 정권의 붕괴시나, 중국이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갖게 될 때, 한강 북쪽,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고토수복전쟁의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주요 근거, 중국이 한강 북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반도 북부에 대한 고토수복전쟁의 명분을 줄 수도 있는 주요 근거가 한국의 고대사학계가 주장하고, 가르쳐온 그대로이다. 조선 후기의 정약용으로부터 일본강점기 식민사학자들, 1945. 08. 15. 광복 후 한국의 고대사학계를 독·과점해 온 학자들이 한국 최초의 국가인 신시와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고, 중조선(준왕 때 위만에게 멸망하는 조선)과 후조선(위만조선),

한사군 영역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고, 그러한 주장대로 한국과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중국에서 중국 세력인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1400여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였고, 그 가운데 고구려가 나오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니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혈통적이나 영토적으로 중국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국이 한강 이북 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토수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인은 한국인에 대하여 역사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국인은 역사문화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교육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정반대인데도 수(隋)·당(唐)과 고구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재산이 소진되고 파괴되었으며,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영구히 역사문화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45년 8.15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국사편찬위원회, 각 대학교의 교수·강사, 각급 연구기관의 연구원, 각급 박물관 등의 고대사 분야를 독·과점해 왔다. 때문에 ‘고조선(古朝鮮)·한사군(漢四郡) 재(在) 한반도설(韓半島說)’에 반하는 연구, 고조선과 한사군 등의 한국 고대사 영역을 한반도 밖, 요하 서쪽에서 찾으려는 연구로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되는 것,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이에 동조·지지하는 학자들이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고대사 전공 교수·연구원을 뽑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결정에 큰 힘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중국이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행태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중국에 의한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고토수복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 또한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필자가 사재를 모두 털어서 개인 연구실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배출하면서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지난 20년 동안 해온 것이다. 세상과 담을 쌓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결과는 요하 동쪽·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역사·중국의 영토에 속

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 한국 고대사의 중심 영역이 북경·천진으로부터 요하서쪽 지역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것, 중국의 고토수복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명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고조선과 한사군 위치에 대한 기존 학설

1) 한국고대사학계를 독·과점해온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정약용(1762~1836)은 낙랑군이 압록강 서쪽 요동에 있었다는 학설들을 비판하면서, 낙랑군 영역은 평안도·황해도이고,¹⁾ 임둔군 영역은 경기도 서북쪽이며,²⁾ 현도군은 옥저의 옛 땅인 함경남도에 있다가 요동으로 옮겨갔고,³⁾ 진번군 영역은 압록강 북쪽 동가강(修佳江) 유역에 있었으며,⁴⁾ 대방군 영역은 평양 남쪽과 임진강 북쪽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⁵⁾

이병도는 낙랑군 영역을 청천강 남쪽의 평안남도 일대와 황해도 북부로, 임둔군은 함경남도 대부분 지역, 현도군은 압록강 중류지역에 있다가 무순지방으로 옮겼고, 진번군은 자비령(慈悲嶺) 이남 한강 이북 지역에 있었으며, 진번군의 북부 7개 현은 낙랑군에 귀속하고 남부 8개 현은 대방군이 되었다고 하였다.⁶⁾

정약용이 진번군 위치를 동가강 유역으로 임둔군 위치를 경기도 서북쪽으로 주장한 반면 이병도가 진번군을 한강 이북지역으로 임둔군을 함경도지역으로 주장한 차이가 있을 뿐 두 학자의 주장은 유사하다. 다만 정약용 등의 조선시대 학자들은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지 못한 반면, 이병도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1) 丁若鏞, 『我邦疆域考』 「樂浪考」

2) 丁若鏞, 『我邦疆域考』 「臨屯考」

3) 丁若鏞, 『我邦疆域考』 「玄菟考」

4) 丁若鏞, 『我邦疆域考』 「眞番考」

5) 丁若鏞, 『我邦疆域考』 「帶方考」

6)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제2편 「한사군문제의 연구」, 박영사, 1985, 97~209쪽.

에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실존한 증거로 조작·왜곡해온 유물·유적을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의 실존 증거로 신봉(信奉)한 점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

모화·사대주의학설, 일제식민사학자들의 학설, 이병도의 학설을 따르는 이병도학과 학자들인 이병도, 이기백, 김철준, 노태돈, 송호정, 오영찬 등으로 이어지는 학자들과 이병도학파를 추종·지지하는 학자들은 패수(溟水)를 청천강 혹은 압록강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병도학과 학자들, 이병도학파의 학설을 추종·지지하는 학자들은 평양·평안도·황해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분석을 하지 않고 낙랑·대방군의 유물로 단정해 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을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고대 중국의 기록, 요동군이 요하의 동쪽에 존재할 수 없고, 요서군이 요하의 서부 지역에 존재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고대 중국의 기록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객관적이지도 못했고, 논리적이지도 못했으며, 실증적이지도 못했다.

2) 민족사관 논자들의 ‘고조선 한사군 재 요서설’

윤내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극소수의 학자들이 ‘식민사관’,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에 대항하여 고조선과 한사군 위치를 요하 서쪽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애석하게도 한(漢)나라와 후조선(위만조선)의 전쟁을 지켜본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의 기록,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구당서(舊唐書)』 「지리지(地理志)」의 기록,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의 기록, 중국 고대의 정치·경제·철학·지리서인 『관자(管子)』의 기록, 요수(遼水)·대요수(大遼水)·패수(溟水)·염난수(鹽難水)·요산(遼山)·소요수(小遼水) 등에 관한 고대 중국 기록에 담겨진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평안도·황해도에서 발굴된 봉니, 인장, 와당, 벽돌, 점제현신사비, 전범, 대구(帶鉤), 마구(馬具), 옥기(玉器) 등의 유물들이 위조된 낙랑유물이었거나 한반도 북부 지방이 전한(前漢)·신(新)·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세력,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실증적으로 밝혀낸 한국 고대사의 진실

필자는 ①한사군과 낙랑·대방군 위치를 한반도로 주장해 온 증거로 제시되어 온 낙랑유물들은 모조리 조작된 것이거나, 한사군과 낙랑·대방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었던 증거, 평양·평안도 지역이 중국의 전한(前漢)·신(新)·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세력,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②또한 한국 최초의 국가는 신시(神市)이고, 『삼국유사』의 환인(桓因)은 하늘님금을 불교식 칭호로 번역한 기록이고, 하늘님금은 하느님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분화되었다는 것, ③환웅천왕이 건국한 신시와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은 흑룡강·요하문명의 주인이었으며, ④고조선의 도읍인 아사달(阿斯達)은 요녕성 조양시나 그 인근 지역이었고, ⑤중조선(준왕 때 위만에게 멸망하는 조선)은 고조선 멸망 후 고죽국이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것, ⑥기자조선은 실존한 국가가 아니라 왜곡된 기록을 사실로 오인하고 만들어낸 상상 속의 국가라는 것, ⑦기자조선의 실존과 은(殷) 말·주(周) 초에 중국 세력이 요하 서쪽에 이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청동기 유물들에 새겨진 글자까지 왜곡하였고, ⑧연나라 동쪽 요하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산융·동호·선비는 산서성 중·북부 및 그 북쪽과 하북성 서북부와 그 북쪽을 영역으로 하였다라는 것, ⑨연나라 화폐로 인식되어 온 명도전(明刀錢)은 고대 한국의 화폐라는 것, ⑩진개의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위략』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기록이라는 것, ⑪고조선과 중조선의 서쪽 국경선인 고대의 요수(遼水)는 영정하永定河(회하恢河 → 상간하桑干河 → 영정하永定河)라는 것, ⑫요동군을 흐르던 대요수는 란하하류이고, ⑬현도군 고구려현의 요산은 란하 유역에 있었고, (소)요수는 란하의 지류이었으며, ⑭압록강(806.503km)으로 인식되어 왔던 2100리(0.4215km·2100=885.15)의 현도군의 염난수(鹽難水)는 란하灤河(885km) 라는 것, ⑮전국시대 말 연나라 동쪽 국경인 갈석산(碣石山)은 오늘날의 갈석산(碣石山)·조산(祖山)·장수산(長壽山)이고, ⑯압록강 혹은 청천강까지로 주장되고 가르쳐져 온 만리장성의 동쪽 끝(동단東端)인 갈석산(碣石山)은 진황도시 산해관 북부의 장수산(長壽山)이라는 것, ⑰후조선(위만조선)의 도읍인 왕협성은 요동군 협독현이 있었던 하북성 창려이었고, ⑱현도군 영역은 만리장성 밖의 란하 중류 유역이었으며, ⑲낙랑군 영역은 대릉하(大陵河) 유역이었고, ⑳임둔군·대방군

영역은 산해관에서 요하 하류까지이었으며, ㉑진번은 대릉하 동북쪽 쌍료 서 남쪽에 있었고, ㉒요동군·요서군으로 분할 된 요동국은 영정하로부터 산해관까지에 있었으며, ㉓예·맥은 란하 중류 유역과 그 북쪽에 있었고, 7) ㉔해모수가 건국한 북부여는 전국시대(서기전 475~서기전 221)와 전한(前漢) 전기의 국가로서 요하 유역과 그 북쪽을 영역으로 하였고, ㉕북부여를 계승한 부여 영역 또한 같다는 것, ㉖고구려 초기의 영역은 요하를 넘어 섰으며, 서기 300년경의 고구려 서쪽 국경은 란하 유역을 넘어 섰고, ㉗백제는 서기 300년경부터 서기 500년경까지 북경·천진지역으로부터 장강하류까지 이르렀으며, ㉘수·당의 고구려 침략은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과 같은 왜곡된 역사 인식에 의해 고구려 영토가 중국의 고토이므로 수복해야 한다는 고토수복전쟁이었다는 것, ㉙71년 동안에 걸친 수·당에 의한 고구려 침략전쟁으로 수(隋)나라가 멸망하였고, 수(隋)·당(唐)과 고구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구가 되고, 수많은 재산이 소진되고 불탔으나 정작 당나라는 고구려를 직접 지배해보지도 못했다는 것 등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다.8)

- 7)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8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세계 최초의 문명인 한국문명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권, 한국학연구원, 2015년 4월 13일.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2권,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4일.
 김종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 8) 김종서, 『부여·고구려·백제사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1~32쪽.
 김종서,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문화』, 한국학연구원, 2007, 30~32쪽.

이어서 고대 한국인들은 약 10,000년 전에 옥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즐기고, 서기전 6200년 이전에 옥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멋을 내며, 이미 7,000년 전 이전부터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을 섬기고, 약 20여m의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상투머리를 한 신상을 모셨으며, 이집트보다 1,000년 이상 앞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청결한 생활을 위해 백의를 입고 하루 두 번씩 목욕을 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좋은 것은 서로 양보하고, 굶주려도 구걸하지 않으며, 문이 열려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길에 떨어진 값진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으며, 강간 간음을 하지 않고, 청렴강직하며, 부모·조상에 지극히 효도하는 도덕군자의 삶을 살았고, 죽어서는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을 한 용이 조상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공자조차 이러한 고대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여 구이(고대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하였다는 등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다.⁹⁾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논하고 설명하려면 이 많은 연구 내용을 전부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일일이 설명하거나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예로 들어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사기, 관자, 산해경으로 본 고조선의 실제 위치

1) '고조선'이란 국호에 대한 문제

고조선의 위치를 말하기 이전에 고조선이 어떤 고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국가가 5개 국가나 있었기 때문이다.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왕검조선),¹⁰⁾ 고조선 명말 후 고죽국이 조선으로 국호를 변경한 중조

9)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문화』, 한국학연구원, 2007, 30~32쪽.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권, 한국학연구원, 2015년 4월 13일.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2권,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4일.

10) 필자가 『신시·단군조선사연구』에서 단군은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의 의미를 가진 칭호이고 왕검은 1세 단

선(준왕 때에 위만에게 멸망당하는 조선), 후조선(위만왕이 건국한 조선), 조선 유민이 평양 남쪽 지방으로 이주하여 건국한 동조선, 태조대왕이 건국한 (근세)조선 등이다. 이 밖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지만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등이 실존한 국가로 신봉하였던 기자조선이 있다.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주장해 온 학자들은 온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실존을 부정하고, 준왕 때에 위만에게 멸망당한 조선과 위만이 건국한 조선을 고조선으로 불러왔다. 그러한 국호 변경에 대한 명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송호정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고조선은 후대의 이씨 왕조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한 표기이다. 고조선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위만조선은 고조선에 포함되는 시기’라고 한 말이다.¹¹⁾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주장해온 학자들 주장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실존을 부정하고, 위만에게 멸망당하는 준왕의 조선(혹은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고조선에 대한 이러한 주장, 기술, 교육은 옳지 않다. 고조선(古朝鮮)은 일연이 기자조선, 위만조선 보다 고대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왕검단군이 건국한 ‘조선(朝鮮) 앞에 ‘옛 고(古)’자를 붙여서 생긴 국호이다. 따라서 왕검단군이 서기전 2333년 전에 건국하여 1908년 만인 서기전 425년에 멸망하는 조선(왕검조선)만을 ‘고조선(古朝鮮)이라고 부르고, 서기전 425년 이후에 건국되어 서기전 194년경에 멸망하는 조선을 삼조선(三朝鮮) 중 중간 시기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중조선(中朝鮮), 서기전 194년에 멸망한 위만조선을 삼조선 중 맨 후기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후조선(後朝鮮), 고구려 남쪽에 있던 조선을 삼조선의 동쪽에 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동조선(東朝鮮), 태조대왕이 건국한 조선을 근세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근세조선(近世朝鮮)으로 분류하여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군의 이름이라는 것, 고조선이 1908년간 존속하는 동안 100명 이상의 단군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단군조선’이라고 하면 ‘왕조선’ ‘황제조선’ 등의 국호와 차이가 없고, ‘왕검조선’은 ‘왕건고려’, ‘이성계조선’과 같은 표기방법으로 올바른 칭호가 될 수 없다..(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277~343쪽.)

11)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9, 1쪽.

2) 『산해경』으로 본 고조선의 실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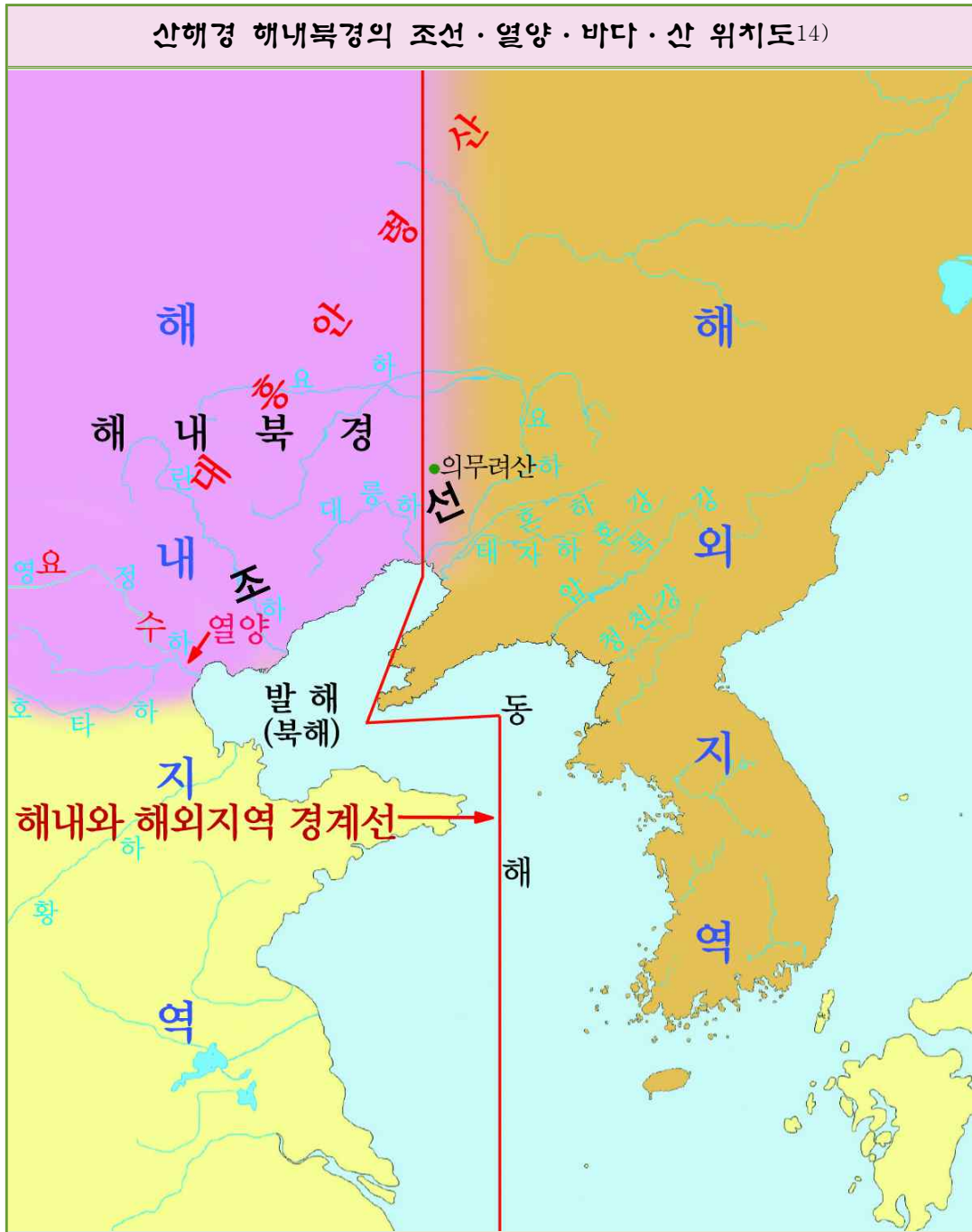
『산해경』은 고대의 지리서이다. 32편이었던 『산해경』을 전한의 유수劉秀(서기전 50년~서기 23년)가 18편으로 정리하였다. 유수는 『산해경』을 하야(서기전 2205~1766년)나라 건국자인 우(禹)와 익(益) 등이 치수(治水) 사업을 끝낸 후, 치수를 하면서 각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¹²⁾

이병도는 ‘중국의 가장 오랜 지리서인 산해경’¹³⁾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해경』을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를 비롯한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논자들은 정작 고조선이 발해의 북쪽, 영정하(永定河) 유역으로부터 요하(遼河) 서안(西岸)까지 사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산해경』의 여러 기록들을 철저히 배척하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왔다. 『산해경』에 고조선의 영역이 요하의 동쪽에 한정되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자신들의 학설에 반하는 여러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 관계상 그 일부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2) 『山海經』 「山海經敘錄」, “西漢 劉秀 上山海經表……”

1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72~73쪽.

(1)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 위치



『산해경(山海經)』 「해내북경(海內北經)」에 “(「해내북경」 즉, 바다<해海> 안쪽의<내內> 북쪽<북北> 지역은<경經>) 바다<해海> 안쪽의<내內> 서북쪽<서북西北> 모퉁이<추陬>에서<이以>

14)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2쪽.

동쪽<동東> 지역<자者>까지이다.……조선은<조선朝鮮> 열양의<열양列陽> 동쪽<동東>, 바다의<해海> 북쪽<북北>, 산의<산山> 남쪽에<남南> 있다<재在>. 열양은<열양列陽> 연나라에<연燕> 속한다<속屬>. [조선은 지금 낙랑군의 현으로 기자를 봉했던 곳이다. 열열 또한 물(강)의 이름이다. 지금 대방에 있다. 대방은 열구현에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¹⁵⁾

이 「해내북경(海內北經)」의 ‘해내(海內)’는 중국에서 본 바다(발해·황해·동중국해)의 안쪽 지역이고, ‘북경(北經)’은 (바다 안쪽의) 북쪽 지역이다.¹⁶⁾

① 『산해경』 「해내북경」의 해내(海內)·해북(海北) 범위

중국 바다 안쪽의 북쪽 지역은 산서성의 북부 및 그 북쪽 지역과 산서성의 서북부 및 그 서북쪽 지역(곤륜산맥)까지를 포함한다. 때문에 「해내북경」에서는 ‘해내북경’에서 다루는 지역을 ‘바다 안쪽의 서북쪽 모퉁이 지역에서부터 동쪽 지역까지이다.’라고 한정된 것이다. 중국 해내(海內)의 서북쪽 모퉁이(변두리 혹은 구석진 곳)는 호타하(滹沱河)와 영정하(永定河) 유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자(東者)는 ‘동쪽 지역’이다. 따라서 ‘바다 안쪽의 서북쪽 모퉁이로부터 동쪽 지역’은 영정하 유역(북경·천진 서부 지역)으로부터 그 동쪽 지역인 대릉하 유역(요하 하류의 서쪽 지역)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해내북경」의 ‘해북산남(海北山南)’ 중에 ‘해북(海北)’은 발해의 북쪽 지역 즉, 영정하 유역으로부터 대릉하유역(요하 하류의 서쪽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 「해내북경」의 위치를 지도에 대강 표시한 것이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열양·바다·산 위치도’이다.¹⁷⁾

즉, 중국에서 볼 때, 바다는 발해(북해)·한중해(한국에서는 서해, 중국에서는 황해)·동중국해가 분명하다. 그 바다 안쪽인 ‘해내(海內)’는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열양·바다·산 위치도’에서 보는 ‘해내와 해외지역 경계선’ 서쪽이 분명하고 ‘해내 중에서 바다의 북쪽 땅’인 ‘해내북경(海內北經)’은 이 지도에서 보는 ‘해내북경’ 지역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은 그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고대사 속의 고

15)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0쪽.

16)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34~59쪽.

17)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1~62쪽.

조선사』에서 “『해내북경』에는 ‘조선이……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었고, 열양은 연에 속했다.’고 써어 있다.……(그러나) 위 (『해내북경』의) 기록은 특정 바다와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말해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결국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¹⁸⁾라고 하였다.

송호정이 ‘중국의 바다 안쪽의 북쪽 지역을 분명히 가리키는, 『해내북경(海內北經)』의 ‘해내(海內)와 ‘바다<해海> 안쪽의<내內> 서북쪽<서북西北> 모퉁이<추岫>에서<이以> 동쪽<동東> 지역<자者>까지이다.’의 ‘해내(海內)를 언급조차하지 아니하고, ‘해북(海北)’만을 부각시켜, ‘(해북海北이) 특정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 주장은, ‘고조선·한사군 재한반도설’의 허구를 입증해줄 고대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왜곡한 것이다. 중국의 바다 안쪽의 북쪽 지역 즉, ‘해내(海內)’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역이 요동반도와 한반도이다. 요동반도와 한반도는 고대 중국의 해내(海內) 지역(地域)이 아니라 중국의 바다 밖 지역 즉, 해외(海外) 지역(地域)이기 때문이다.¹⁹⁾

② 『산해경』 「해내북경」의 해북산남(海北山南)

이러한 고대 지리 정보를 담은 「해내북경」에 ‘조선은 열양(列陽)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바다의 북쪽은 발해의 북쪽으로 천진·북경 지역으로부터 요하 서쪽 지역과 그 북쪽 지역이고, ②산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산은 발해 북쪽에 있는 산이다. ③그러므로 ‘바다 안쪽의 서북쪽 모퉁이로부터 그 동쪽 땅 안에 있었던 조선의 북쪽 산’은 대흥안령산맥이다.²⁰⁾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의 북쪽에 있는 산(山)을 현재의 의무려산(醫巫閭山)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은 ‘의무려(醫巫閭)’라는 단어는 안사고(顏師古:서기 581~

645)가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무려현(無慮縣)’조에 ‘무려(無慮)인즉 의무려(醫巫閭)’라고 한 말로부터 비롯된 단어이다. 그러나 ‘무려(無慮)’가 ‘의무려(醫巫閭)’라는 안

18)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9, 18~19쪽.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55~56쪽.

19)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34~110쪽.

20)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2~63쪽.

사고의 말은 근거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①‘무려(無慮)’는 요동군에 속한 ‘무려현(無慮縣)’을 가리키는 것이지, ‘의무려(醫巫閭)’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동군에 ‘의무려현(醫巫閭縣)’이라는 속현이 존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②더욱이 무려현(無慮縣)의 ‘무려(無慮)’ 앞에 ‘의(醫(의원 의))’자가 오지 않고, ③의무려현(醫巫閭縣)에 ‘무(無:없을 무)’자도 없으며, ‘무(巫:무당 무)’가 ‘무(無:없을 무)’자일 수도 없고, ‘려(慮:생각려 자)’자가 ‘려(閭:마을 어귀 문 려)’자일 수도 없다. ④따라서 ‘무려(無慮)’와 ‘의무려(醫巫閭)’는 상호간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⑤뿐만 아니라 안사고는 요동군과 요동군에 속한 무려현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된 후 300년 이상 지난 후대 사람이다. 따라서 안사고가 적대국인 고구려에 속한 옛 요동군과 무려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을 리 없다. 따라서 안사고의 ‘요동군 ‘무려현(無慮縣)’이 ‘의무려현(醫巫閭縣)’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역사왜곡일 뿐이다. 의무려산을 요동군 무려현에 있던 산으로 주장해온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 의무려산은 영정하와 요하 사이에 있는 작은 산으로 최고봉의 높이가 867m에 불과하며, 그 위치도 발해의 동북쪽 모퉁이 북쪽 지역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므로 ‘해내의 서북쪽 모퉁이로부터 그 동쪽 땅’ 즉, 동해(발해)의 북쪽에 있으면서 영정하로부터 대릉하 유역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의 북쪽을 대표하는 산이 될 수도 없다.²¹⁾

그런데 송호정은 그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에서 “「해내북경」에는 ‘조선이 열양(列陽)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었고, 열양은 연에 속했다.’고 써어 있다……(그러나) 위 (「해내북경」의) 기록은 특정 바다와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말해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해내북경」에서 ‘해북산남(海北山南)’이라고 한 것은 위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바다에 면하였다는 의미다…현재의 요동과 서북한 지역을 대입해 보아도 이야기는 성립한다. 현재의 요동과 서북한은 뒤로는 장백, 낭림산맥을 등지고 앞으로는 바다에 면한 고장이다……결국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²²⁾라고 하였다.

송호정이 ‘중국의 바다 안쪽의 북쪽 지역을 분명히 가리키는, 「해내북경(海內北經)」의

21)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2~65쪽.

22)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9, 18~19쪽.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55~56쪽.

‘해내(海內)’와 ‘바다<해海> 안쪽의<내內> 서북쪽<서북西北> 모퉁이<추陬>에서<이以> 동쪽<동東> 지역<자者>까지이다.’의 ‘해내(海內)를 언급조차하지 아니하고, ‘해북(海北)’ 만을 부각시켜, ‘(해북海北이) 특정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 주장에 이어서 (고대 중국의 해외海外 지역인 ‘현 요동(요동반도)’과 서북한(평안도·평양) 지역을 『산해경』 「해내북경」의 ‘해북산남(海北山南)’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의 허구를 입증해 줄 고대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왜곡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²³⁾

③ 『산해경』 「해내북경」의 열양(列陽)

한편 「해내북경」에서 ‘조선은 열양(列陽)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양(列陽)은 연(燕)나라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열양이 연나라와 조선의 국경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내북경」에서 말하는 해내(海內)의 서북쪽 모퉁이는 앞서서 말했듯이 ‘천진(天津)과 천진의 서북쪽 지역’인 ‘영정하 유역과 그 인근지역 및 그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내의 서북쪽 모퉁이의 동자(東者)는 ‘영정하의 동쪽 지역’이다. 그 「해내북경」에 조선을 「해내북경」 지역 중에서도 열양(列陽)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고,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고 하였다. 연나라는 서기전 1117년에 건국되어 서기전 222년에 멸망하였다. 그런데 전국시대의 연나라 동쪽에는 요동과 조선이 있었고, 전국시대 말기에 연나라가 요동국을 멸하였다. 그러므로 연나라에서 보았을 때, 요동국이 조선의 바로 서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해내북경」이 전국시대에 편찬되었다면, 열양의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고 하지 않고 요동의 동쪽에 조선은 있었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요동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하지 않고, 열양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해내북경」의 조선 관련 기록은 전국시대 이전 기록이고, ‘열양(列陽)’이라는 지명이 사라진 것도 전국시대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국시대 역사 기록인 『전국책』이나 『사기』, 『여씨춘추』의 전국시대 연나라 관련기록이나 조선 관련 기록에 ‘열양(列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해내북경」에 조선과 연나라 위치를 기록한 연대를 아무리 뒤로 잡아도 소진이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말한 전국시대 중기 이전일 것이다.²⁴⁾

23)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34~110쪽.

그런데 괘박(서기 276~324년)이 열양에 대하여 주석을 달기를 ‘열(列) 또한 물(강)의 이름이다. 지금 대방에 있다. 대방은 열구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괘박의 주장은 옳지 않다. 연나라의 가장 동쪽 지역인 열양은 요동국(요동·요서군)과 조선의 서쪽에 있어야 하고, 조선을 떨하고 설치한 낙랑·대방군은 요동·요서군의 동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열양과 조선의 열수·열구 사이에는 요동국(요서군·요동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열양은 후조선 고토 위에 설치된 낙랑군의 열수와 열구와 전혀 관계없는 지명임이 분명하다. 괘박이 생존할 당시는 대방군과 대방군을 흐르던 열수는 실존하고 있었지만, 전국시대 이전의 연나라와 조선의 국경지역이었던 열양(列陽)이라는 지명이 사라진 지 7~800년 이상 지난 후이다. 때문에 괘박은 열양의 위치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①열양(列陽)의 ‘양(陽)’자가 산의 남쪽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강의 북쪽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 ②낙랑군에 열구현이 있었고, 대방군 열구현에 열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방군 열구현을 흐르는 열수의 북쪽이 열양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현재까지 열양의 위치를 논하는 고대사 연구자들 중에 열양을 낙랑군을 흐르던 열수, 열구현과 연결 지어 위치를 논하지 않은 학자가 없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²⁵⁾

2003년에 발표한 『단군조선 영토 연구』를 비롯하여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에서 고대의 요수는 영정하(회하恢河→상간하桑干河→영정하永定河)라는 것, 고대(전국시대)의 요동국은 영정하 동안(東岸)으로부터 산해관까지를 영역으로 하였다는 것, 천진시 계현(薊縣)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되어 온 연나라 수도는 역수(易水)의 북안에 있는 연하도(燕下都)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전국시대 이전의 연나라 영역은 영정하 남·서남쪽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국시대 이전의 지리 정보를 수록한 『산해경』 「해내북경」의 동서 범위는 천진과 천진의 서북쪽 지역(영정하 유역)으로부터 대릉하 유역(요하 하류의 서쪽 지역)까지, 북쪽 범위는 발해 북쪽의 하북성 동부·요녕성 서부 및 그 북쪽의 내몽고·외몽고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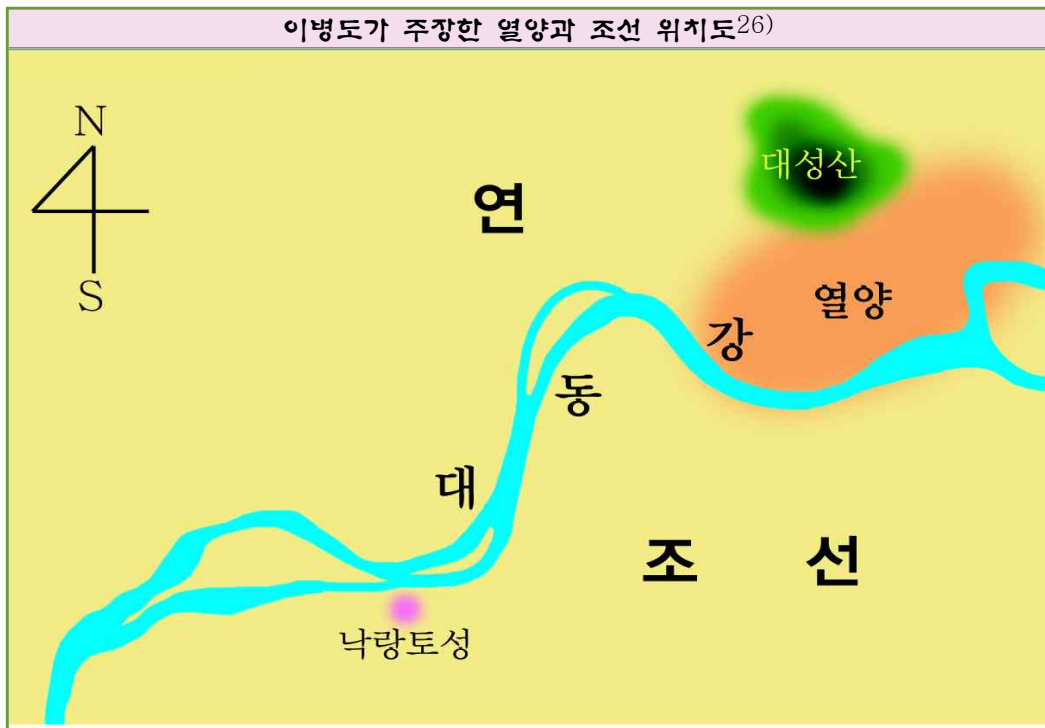
24)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5~66쪽.

2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5~67쪽.

었다. 그러므로 (요동을 속국으로 둔) 조선은 북경·천진으로부터 요하 사이, 발해의 북쪽으로부터 대흥안령의 남쪽 사이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의 서쪽 국경지역인 열양도 영정하 하류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열양(列陽)’이라는 지명은 『산해경』 「해내북경」의 “조선의 동쪽에 열양(列陽)이 있고,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는 기록에 단 두 번 등장할 뿐 고대 중국의 어떤 사서에 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열양(列陽)의 ‘양(陽)’자는 산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강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는 점을 근거로 열양(列陽)이 열산(列山)의 남쪽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열수의 북쪽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산의 남쪽이나 강의 북쪽과 관계없이 ‘양(陽)’자가 사용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시대 이전의 지명인 열양(列陽)을 수백 년 이후의 지명인 낙랑군 열수(列水)의 북쪽으로 비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중국의 가장 오랜 지리서인 산해경의 해내북경 조에……열양은 열구와 한 가지, 열수(列水: 지금의 대동강)와 관계있는 지명으로 열구가 열수의 하구(河口)의 뜻임에 대하여 열양(列陽)은 열수의 북이란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



26)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69쪽.

대개 산북(山北:산의 북쪽 지역)·수남(水南:강의 남쪽 지역)을 음(陰), 수북(水北:강의 북쪽 지역)·산남(山南:산의 남쪽 지역)을 양(陽)이라 하는 까닭이다.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입은 주지의 사실이니(금서룡의 「열수고」)……나는 열구를 대동강 하류 유역인 황해도의 은율(殷栗:고구려시대의 율구)에 비정하고, 열양은 대동강 북쪽 – 특히 지금 평양 대성산 하(下:아래)로 비정하고 싶다.……낙랑군의 수현인 조선 군치가 전일 발견된 유물·유적에 의하여 지금 평양의 대안인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임이 틀림없다.……특히 이곳을 조선 현치로 삼은 것도 본디 이곳이 한씨조선 말기의 수도이었음에 연유된 지도 모르겠다. 좌우간 당시 조선은 열양 동쪽 – 즉 열수 이남에 위치하여……”²⁷⁾ 라고 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병도가 ‘평양 대성산 남쪽이 열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병도의 열양은 대동강 북안과 대성산 남쪽 사이에 있는 남북 10여리, 동서 3~40리 내외의 작은 들판 지역이라는 말이다. 또 이병도는 열수가 대동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의 수도……낙랑군의 군치가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수도, 낙랑군의 군치는 열양의 동쪽이 아니라 열양의 서남쪽에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당시 조선은 열양 동쪽 – 즉 열수 이남에 위치하여’라고 하였다. 대동강 북안에 있는 열양의 동쪽이 대동강 남안이라는 말이다. 『산해경』 「해내북경」의 ‘열양(列陽)의 동쪽에 조선이 있고, 열양은 연나라 땅’이라는 기록을 ‘고대 조선과 낙랑군 지역이 대동강 남쪽이었다.’는 근거로 삼기 위해 동쪽을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고조선이 발해 북쪽 요하 서쪽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의 ‘해내(海內)’와 ‘바다 안쪽의 서북쪽 모퉁이에서 동쪽 지역까지이다.’라는 기록을 언급조차하지 않은 것 또한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의 유지를 위해, 고대 한국 영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희귀한 중국 고대 지리 기록조차 ‘고조선·한사군재 한반도설’에 배치되는 기록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옳지 않다.

2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72~73쪽.

(2)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 위치

『산해경』 「해내경」에, “(중국의) 동해 안쪽의 북해(발해) 모퉁이에 이름을 조선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있다. 하늘님이 그 조선인들을 기르시고 다스리신다. 그 조선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등의 물 가까이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²⁸⁾ 라고 한 기록이 있다.

「해내경(海內經)」의 ‘해내(海內)’는 중국에서 본 바다(발해·황해·동중국해)의 안쪽이고, 동해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들인 발해(渤海), 황해(黃海), 동중국해(東中國海)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역사서, 경서, 자전, 문집 등에서 말하는 중국의 동해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산해경』 「해내경」에 기록된 ‘동해지내(東海之內)’ 즉, ‘동해<동해東海>의 <지> 안쪽은<내內>’ 중국의 동해(발해·황해·동중국해)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해내(海內)’는 중국의 ‘바다<해海> 안쪽<내內>’ 지역 즉, 발해·황해·동중국해의 안쪽(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28) 『山海經』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天壽其人 水居俚人愛之”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29)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34~59쪽, 75~81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56~68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302~312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314~326쪽.

30)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76쪽.

산해경 해내경의 동해·북해 위치도³⁰⁾



또 발해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가 만나는 발해 해협의 서남·서·서북·북쪽 바다를 가리키는데, 중국의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발해(渤海), 혹은 발해(勃海)라고 불려 왔다.

중국에서는 그 발해를 고대로부터 ‘북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로 ‘북해(北海)’라고도 불려 왔다.³¹⁾ 즉, 중국의 동해(東海) 중에서 맨 북쪽에 있는 바다가기 때문에 ‘북해(北海)’라고 한 것이다. 발해가 북해라는 것은 『한서』에 청주(靑州) 자사부의 관할지역(북해)에 접한 산둥반도 일부 지역에 북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기록,³²⁾ 『후한서』에 북해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해국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을³³⁾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1)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 연구(수정증보판)』, 2004, 314~318.

32)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上」 <北海郡> “北海郡 [景帝中二年置屬靑州] ”

따라서 『산해경』 「해내경」의 ‘동해 안쪽의<동해지내(東海之內)> 북해(발해) 모퉁이에<북해지우(北海之隅)> 이름을 조선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있다<유국명왈조선(有國名曰朝鮮)>.’라는 기록은, 중국의 ‘동쪽 바다(발해·황해·동중국해)’ 중에서도 ‘북쪽 바다(발해)’의 모퉁이에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이다.

이 『산해경』 「해내경」의 기록은 (춘추시대 중국의) 해내(중국 바다의 안쪽) 지역에서 제나라가 7개 지역(국가)에서 옥폐로 받을 수 있는 물품을 말할 때, 발조선의 문피가 그 하나라는 『관자』의 기록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그런데 발해(북해)의 모퉁이에 있는 지역은 산둥반도 북쪽의 봉래(蓬萊)로부터 그 서쪽 지역, 하북성 중부·북부·동부, 요하 서쪽의 요녕성 서부 및 요동반도 서부 지역을 포함하는 요녕성 동부 지역 등 발해와 접한 지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한반도는 북해(발해)의 모퉁이가 될 수 없고, 중국 동해의 안쪽에 있을 수도 없다.

발해(북해)의 모퉁이에 있는 지역 중에서 산둥반도 북쪽의 봉래(蓬萊)로부터 그 서쪽 지역, 하북성 중부지역(영정하 하류 서쪽의 남쪽 지역)까지는 고대 중국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동해(발해·황해·동중국해) 안쪽 중에서도, 북해(발해) 모퉁이에 이름을 조선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있다.’라는 『산해경』 「해내경」의 기록을 현재의 지명으로 옮기면, ‘중국의 동쪽 바다 중에서도 북쪽 바다인 발해(북해)의 모퉁이 지역 중에서도 영정하의 동쪽으로부터 요동반도의 서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조선(朝鮮)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된다.

이와 같이 『산해경』 「해내경」에서 말하는 ‘고대 조선의 위치’는 고대의 조선의 위치와 요동·요서군과 한사군이 영정하의 동쪽으로부터 요하 서쪽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자의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8권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이 연구서들 이전에 필자가 발표했던 『신시·단군조선사연구』 『단군조선영토연구』 『기자·위만조선연구』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³⁵⁾

33) 『後漢書』卷三十二「郡國四」<青州>“北海國”,“北海國 [景帝置 建武十三年 有菑川 高密 膠東 三國以 其縣屬]

34)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 연구(수정증보판)』, 2004, 312~329.

35) 金鍾序,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金鍾序,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단군조선영토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산해경』 「해내경」 편에는 고대 조선의 위치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고, 「해내경」의 기록을 실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은 “...특히 『산해경』에서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 [동해지내(東海之內) 북해지우(北海之隅)] 라고 한 것은 넓게 보아 조선이 동해의 범위 안, 즉 동해에 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해 북부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³⁶⁾ 고 하였다.

독자들은 위와 같은 송호정의 주장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송호정의 위 주장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① 『산해경』의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동해지내(東海之內) 북해지우(北海之隅) 유국명왈조선(有國名曰朝鮮)’ 기록에 등장하는 조선이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서부의 평양·평안도에 있던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②요동반도와 한반도 북서부 지역도 넓게 보면 중국의 동해에 면(접)한 지역이다. ③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해경』에 소개된 조선이 동해 북부의 한쪽 가인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서부 지역에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산해경』 「해내경」의 ‘중국의 동해(발해·황해·동중국해)의 안쪽 북해(발해) 모퉁이(요하의 서쪽·발해의 북쪽 지역)에 조선이 있다’고 한 기록을, 정반대로 중국 동해의 바깥쪽에 있는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서부에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이라고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송호정이 ‘결국 『산해경』의 기사는 개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고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말도 ‘조선의 위치를 중국 동해의 안쪽, 발해의 북쪽, 요하의 서쪽’에 있었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산해경』 「해내경」과 「해내북경」의 기록을 왜곡한 것으로 옳지 않다.

36)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9, 2. 19쪽.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56쪽.

『산해경』의 「해내경」 「해내북경」 「해내동경」 등에 조선의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충분히 있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정이 ‘『산해경』의 기사는……고 조선의 본래 위치를 논하는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한 주장은 고대 조선 영역을 요하의 동쪽, 한반도 북서부로 주장해온 자신들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산해경』 기록을 사료로써 배척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자』로 본 고조선의 실제 위치와 영토 크기

(1) 관중과 환공이 증언하는 8,000리 영토의 고조선

『관자』 「경중잡」 편에 “팔천리지오월(八千里之吳越)……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팔천리지우씨(八千里之禹氏)……팔천리지곤륜지허(八千里之崑崙之虛)”라는 기록이 있다.

신채호(申采浩), 리지린, 윤내현(尹乃鉉), 이종욱(李鍾旭) 등은 위 『관자(管子)』의 ‘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의 8,000리를 제(齊)나라와 조선(朝鮮)과의 거리로만 파악하였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³⁸⁾

37)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27~110쪽.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 84~87쪽, 152~156쪽.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 187~233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56~68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302~312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314~3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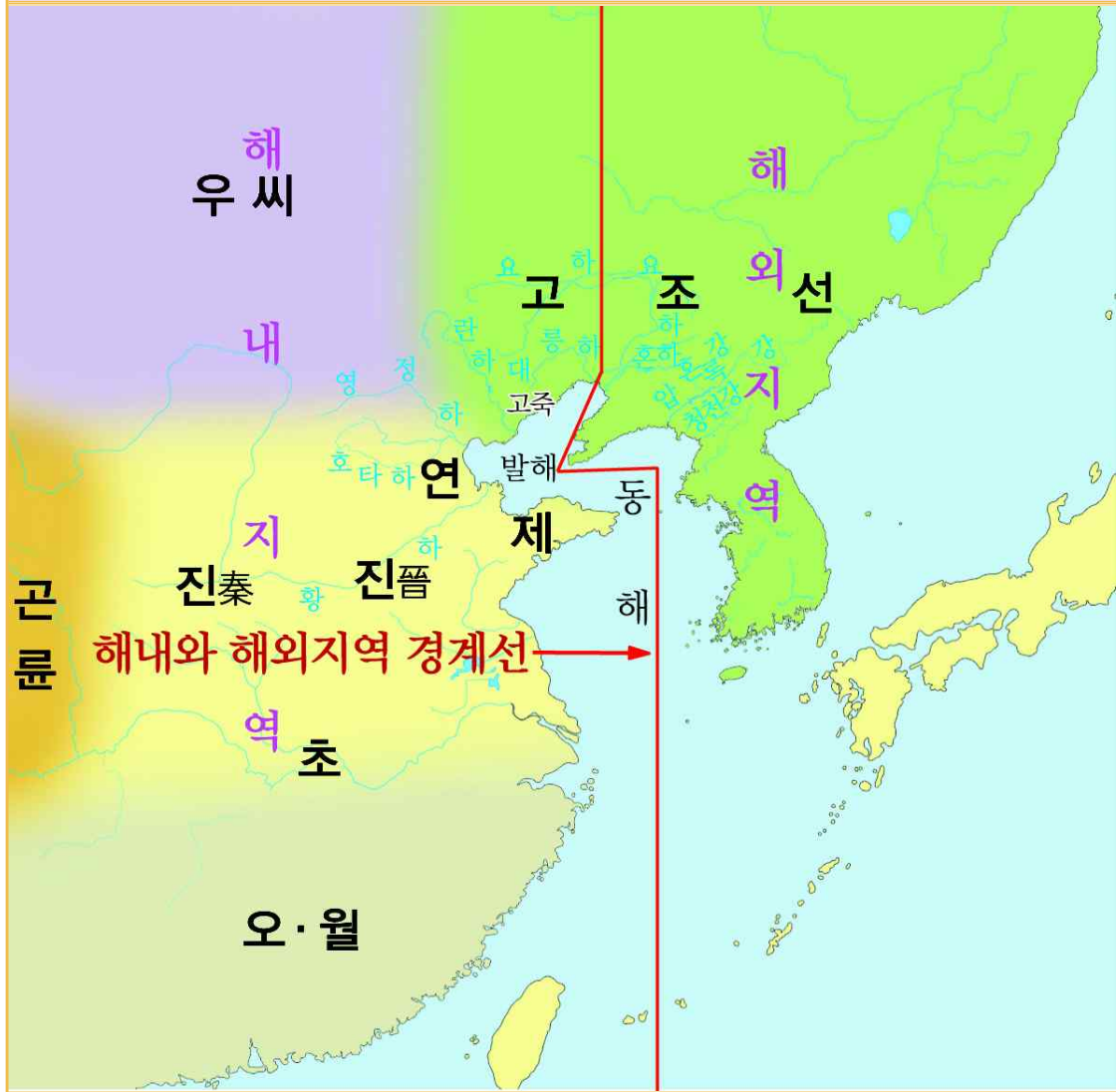
38) 申采浩, 「前後三韓考」 『朝鮮史研究草』 단제신채호전집중, 1977, 79~87쪽.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백산자료원 재판, 1997, 11~13쪽.)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589~590쪽.

이종욱, 『고조선사연구』, 일조각, 1997.

관자의 해내지역 위치도(서기전 650년 이전)³⁹⁾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주장자들은 『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왔다. 다만 송호정 만이 그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에 대하여 “조선(朝鮮)을 제(齊)나라(현 산둥반도)에서 8천리(千里)가 된다고 한 것은 절대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리가 멀다는 것을 형용한 데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실에 있어서 8천리가 안되거니와 오월(吳越), 우씨, 곤륜 등을 모두 동

39)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49쪽.

일하게 8천리가 된다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자에 대한 중국식 표현이며, 이 수자를 가지고 고조선(古朝鮮)과 제(齊)나라와의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처음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였던 고조선(古朝鮮)의 모습은 중국(中國)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존재하는 나라로서……”라고 하였다.

또 송호정은 그의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에서 ‘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 등을 비롯한 『관자』의 조선 관련 기록에 대하여 “조선의 존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기록으로는 앞서 말한 《관자》 권23 ‘경중갑’편과 ‘규도’편을 들 수 있다. … 또 조선은 제(지금 산둥반도에 위치)에서 8,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8,000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실제 8,000리가 안 되거니와 오월(吳越)·우씨(禹氏)·곤륜(崑崙) 등 다른 지역과의 거리도 모두 동일하게 8,000리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상 멀다는 표현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고조선과 제나라와의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⁴⁰⁾라고 하였다.

송호정의 이러한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이러한 송호정의 주장은 마치 춘추시대의 중국 사관들, 관중과 환공의 대화록을 기록한 제나라 사관들을 ‘멀다’라는 표현을 ‘팔천리(八千里)’로 표시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이다. 『관자』의 ‘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 등의 ‘팔천리(八千里)’가 ‘멀다(멀원遠)’라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관자』에서 ‘멀다’를 ‘멀 원(遠)’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부 ‘팔천리(八千里)’로 표현 했는지,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멀다’라는 표현을 ‘팔천리(八千里)’로 기록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관자』 어디에도 ‘팔천리(八千里)’를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곳이 없다.

40)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59~60쪽.



필자가 『관자』에서 ‘멀 원(遠)’자를 전부 찾아보니 모두 162곳에서 ‘멀 원(遠)’자를 ‘거리가 멀다’, ‘사이가 멀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가깝고 먼 거리’의 의미로 원근(遠近)이라는 단어가 20차례 사용 되었다.⁴²⁾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자』에서 ‘거

41) 中國社會科學院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第一冊, 中國地圖出版社, 1996, 20~21쪽.

42) 『管子』

리가 멀다'라는 의미로 '원(遠)'자가 사용된 사용례 1건과 '멀고<원遠> 가깝다<근近>'는 의미로 '멀 원(遠)'자와 '가까울 근(近)'자가 사용된 사용례 1건씩을 소개하기로 한다.

『관자』의 첫 번째 문장이 “영지를<지地> 가지고<유有> 백성을<민民> 다스리는<목牧> 모든<범凡> 이들(영주)은<자者> 봄·여름·가을·겨울의 사시를<사시四時> 힘써<무務> 살펴서<재在> 창고와<창倉> 곳집을<름廩> (채워서) 지키는데<수守> 있다<재在>. 국가에<국國> 재물이<재財> 많으면<다多> (그) 재물이<재財> 멀리 있는<원遠> 사람도<자者> 오게 만든다<래來>.”⁴³⁾ 이다.

또한 『관자』 「승마」 〈우무시사〉 편에, “천하에<천하天下> 말을<마馬> 타고<승乘> 소에게<우牛> 수레를 끌게 할 때에<복服>도<이而> 임무<임任>의<지之> 무겁고 가벼움에 대한<경중輕重> 제도가<제制> 있다<유有>. 하루 밤을 잘 숙소가<일숙壹宿> 있어<유有> (말을 타거나 수레를 끌고) 가는<지행之行> 도로<도道>의<지之> 멀고<원遠> 가까운<근近> 거리 수를 헤아릴 수 있다<유수의有數矣>.”⁴⁴⁾ 라고 하였다.

이로써 『관자』의 ‘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의 ‘팔천리(八千里)’가 송호정의 주장처럼,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이 분명히 알 수 있다.

송호정은 또 “조선은 중국 제나라에서 8,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넓은 땅덩이를 보통 사방 2,000리라고 표현하는데, 2,000리의 4배나 되는 8,000리는 실제 거리는 아니고, 아마 중국에서 굉장히 먼 곳에 조선이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⁴⁵⁾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대 중국인들은 넓은 땅을 보통 2,000리라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8,000리를 굉장히 먼 곳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경제·사상·지리학자이자 군사전략가인 관중이 8,000리를 멀다는 의미로 사용했을 리 없고, 그렇게 사용한 적도 없다. 중국에서 여러 나라들의 땅(영토) 넓이를 말한 사람은 소진이다. 『사기』 「소진열전」에서 소진이 연나라 땅이 사방 2,000리, 조나라 땅이 사방 2,000리, 제나라 땅이 사방 2,000리라고 말한 것을 보고, 넓은 땅덩이를 2천리로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진은 한(韓)나라 땅은 사방 900리, 위나라 땅은 사방 1,000리, 초나라 땅은 사방 5,000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진이 넓은

43) 『管子』 卷一 「牧民」,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國多財 財遠者來”

44) 『管子』 卷一 「乘馬」 〈右務市事〉, “天下乘馬服牛 而任之輕重有制 有壹宿之行 道之遠近有數矣”

45) 송호정,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고래실, 2003. 46~48쪽.

땅을 2,000리라고 지칭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⁴⁶⁾

필자는 2003년에 발표한 『신시·단군조선사 연구』에서 『관자』 「경중갑」 편의 “팔천리지오월(八千里之吳越)……팔천리지발조선(八千里之發朝鮮)……팔천리지우씨(八千里之禹氏)……팔천리지곤륜지허(八千里之崑崙之虛)”의 기록 중의 ①‘팔천리(八千里)’를 제나라로부터의 거리라고 오인(誤認)하여 왔다는 것, ② 『사기』 등의 중국 고대 사서에 오(吳)·월(越)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 제(齊)나라와도 국경을 마주한 나라임을 보여 주는 많은 기록이 있고, ③ 환공이 북쪽의 고죽(孤竹)·이지(離枝)를 치려고 하는데 오나라가 수군으로 기습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하고, ④ 관중의 방책으로 수군을 길러 월나라 수군의 기습공격을 물리친 기록, ⑤ 중국사회과학원의 ‘춘추시기전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⑥ 오월(吳越)은 춘추시대의 중국, 제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라는 것, ⑦ 따라서 오(吳)·월(越), 발조선, 우씨, 곤륜으로부터 특산물을 받을 대책을 말하면서 이웃 나라인 오(吳)·월(越)에 대하여 ‘팔천리(八千里)’가 떨어진 나라라고 말할 리 없다는 것. ⑧ 따라서 『관자』 「경중갑」 편의 기록은 춘추시대 중국의 남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吳)·월(越), 중국의 북동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조선(發朝鮮), 중국의 북서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씨(禹氏)나라, 중국의 서쪽 국경을 접하고 있던 곤륜(崑崙)이 각각 8,000리씩의 영역을 가진 나라·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 ⑨ 고조선은 고대의 중국에 모직물을 수출하는 모직물 선진국이었다는 것 등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⁴⁷⁾

필자가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관자』의 기록이 영토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학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46)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48~58쪽.

47)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46~56쪽.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286~300쪽.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300~314쪽.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73~85쪽.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48~58쪽.

(2) 관중과 환공이 증언하는 고조선의 위치

『관자』 「규도」 편의 “환공이 관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바다 안쪽(발해, 황해, 중국의 동해) 땅에서 옥폐(玉幣)로 받을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히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관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품질이 옥 다음가는 아름다운 돌인) 음산의 연과 민이 그 하나이고, 연나라의 자산에서 나는 백금이 그 하나이며, 발조선의 문피가 그 하나이고, 여수와 한수의 우측 경계지역에서 나는 황금이 그 하나이며, 장강 북쪽의 진주 구슬이 그 하나이고, 진나라 명산의 푸른색 염료가 그 하나이며, 우씨나라에 있는 변산의 옥이 그 하나입니다.’라고 하였다.⁴⁸⁾ 라는 기록이 바로 발조선이 8,000리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 ‘관자의 해내지역 위치도(서기전 650년 이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제나라에서 본 바다 안쪽 땅, 즉 ‘해내(海內) 지역’ 중에서 영정하(永定河) 동안(東岸)의 천진(天津)·북경(北京)부터 그 이북과 그 이동지역이 발조선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⁴⁹⁾

중국에서 볼 때 바다 안쪽 땅인 해내(海內)는 동지나해, 황해(한·중해), 발해 안쪽 땅이다. 요동반도와 한반도는 중국의 바다 안쪽 땅이 아니라 바다 바깥쪽 땅 즉, 해외(海外)이다. 따라서 옥폐로 받을 수 있는 ‘바다(동지나해·황해·발해) 안쪽 땅’인 음산, 연나라 자산, 발조선, 여수와 한수, 장강, 진나라 명산, 우씨나라의 변산 등에서 나는 특산물을 언급하는데 발조선의 문피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발조선이 중국의 바다 안쪽 지역에 있는 나라였음을 증언해주는 기록이다. 춘추시대 중국의 해내(바다 안쪽 지역)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은 발해 북안으로부터 하북성 동부·요녕성 서부와 그 이북지역인 내몽골, 외몽골, 시베리아지역까지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바다 안쪽에 있으면서 8,000리 영토를 가진 발조선은 하북성 동부·요녕성 서부와 그 이북지역인 내몽골, 외몽골,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을 영역으로 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48) 『管子』 卷二十三「揆度」第七十八,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策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礪磬一策也 燕之紫山白金一策也 發朝鮮之文皮一策也 汝漢水之右衢黃金一策也 江陽之珠一策也 秦明山之曾青一策也 禹氏邊山之玉一策也”

49)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46~56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286~300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300~314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73~85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48~58쪽.

그런데 송호정은 그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관자』의 기록에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확정적인 언급이 없고,……”⁵¹⁾ 라고 하였고,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에서 “『관자』에 조선이 단지 하나의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위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⁵²⁾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송호정의 주장은 조선의 위치와 영토 크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관자』의 기록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관자』 「규도」 편의 “환공이 관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해내(海內:바다 안쪽)’에서 옥폐(玉幣)로 받을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히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관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조선의 문피가 그 하나입니다.”라고 하였다.⁵³⁾ 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환공이 해내(海內:바다 안쪽)에서 옥폐로 받을 수 있는 7가지에 대하여 묻고, 관자(관중)가 해내(海內)에서 받을 수 있는 7가지 옥폐 중의 하나로 ‘발조선(發朝鮮)’에서 생산되는 문피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본 바다는 발해(渤海)·황해(黃海)·동중국해(東中國海)이고, 고대 중국에서 말하는 동해(東海)는 발해·동해·동중국해이며, 고대 중국에서 말하는 ‘해내(海內)’는 발해(渤海)·황해(黃海)·동중국해(東中國海)의 안쪽 지역, 즉 요하 이서(以西)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고조선의 영토 위치가 요하(遼河) 이서(以西) 지역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관자』 「규도」 편의 관중의 말을 배척하고, 송호정이 ‘『관자』의 기록에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확정적인 언급이 없고, 그(조선) 위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한 주장은,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이 잘못된 주장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고조선이 실존할 당시의 기록들인 『관자』의 기록을 배척하고 왜곡하는 것을 옳지 않다.

50)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46~56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286~300쪽.
 김중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300~314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73~85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48~58쪽.
 51) 송호정,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1999, 2. 21쪽.
 52)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3, 46쪽.
 53) 『管子』 卷二十三「揆度」第七十八,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策 可得而聞乎 管子對曰…發朝鮮之文皮 一策也…”
 54)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02월 23일, 34~59쪽.

(3) 관자와 산해경의 조선 관련 기록을 배척해온 한국고대사학계

일본은 신무(神武)가 서기전 660년에 일본을 건국하였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관자』는 서기전 645년에 죽은 관중(管仲: 서기전 645년)과 서기전 643년에 죽는 환공(桓公: 서기전 685~서기전 643년)의 대화록이다. 따라서 『관자』의 조선(朝鮮) 관련 기록은 서기전 645년 전 이전의 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자』의 조선(朝鮮) 관련 기록을 인정하면 일본의 역사보다 한국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공인(公認)하게 된다. 때문에 『관자』가 전국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전한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위서(僞書)이니 하는 말로 폄하하여 왔다. 또 『산해경』의 기록은 『관자』의 기록보다 더 고대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전한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위서(僞書)이니 하는 말로 폄하하여 왔다.

고대 중국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쪼개어 가죽 끈으로 묶은 죽간에 글자를 써 넣었다. 대나무편에 글자를 조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각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조각보다는 글자를 써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죽간으로 만든 서적들은 이리저리 옮기고,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끈이 끊어지기도 하고, 글자가 뭉개지거나 마모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부단히 원본을 베껴 필사가 이루어지고, 필사본은 다시 필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잘못 옮긴 글자가 생기고, 필사자가 자신의 사상을 슬쩍 써넣기도 했다. 『시경』 『서경』 『춘추』 『예기』 『도덕경』 『국어』 등처럼 『관자』나 『산해경』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때문에 『관자』나 『산해경』에 전국시대 이전 혹은 전한시기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글자나 단어가 발견된다고 하여 전국시대 작품이니, 전한시대 작품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위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노태돈은 “『관자』는 적어도 전국시대 이후에 씌어 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관자』에 의거해 BC(서기전) 7세기에 조선의 존재가 고대 중국에 알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관자』의 기사에 의거해 고조선의 구체적인 등장시기를 규정할 수 없다. 『전국책』에 소진이 연 문후(서기전 361~333년)에 대해 당시 연의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연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 당시 조선이 연의 변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연의 국세와 대외관계를 논할 때에 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세력집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늦어도 BC 4세기 중반에는 조선의 실체가 북중국 지역의 사람들에게 뚜렷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⁵⁵⁾ 고 하였다.

『관자』의 편찬 시기를 문제 삼아 왕검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이 서기전 7세기(서기전 645년 이전)에 실존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관자』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해 버리고, 『전국책』과 『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소진의 말’만을 근거로 조선이 중국에 알려진 연대를 서기전 4세기로 낮추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고조선의 실존 연한을 낮춘 것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신시·고조선 부정설’ 논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4) 사기와 전국책, 여씨춘추로 본 ‘중조선’의 영토 위치

필자는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이 실존하던 당대의 기록인 『사기』 『전국책』 『여씨춘추』 등에 고조선의 위치가 요하 서쪽지역에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들을 찾아서 고조선, 예, 맥, 옥저, 임둔, 진번이 요하 서쪽에 있었고, 북부여·부여가 요하 유역과 그 북쪽에 있었음을 증명한 바 있다.⁵⁶⁾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양해 바란다.

55) 盧泰敦 편저, 「고조선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2,000, 70~75쪽.
 56)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한국학연구원, 2003.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신시·단군조선사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8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세계 최초의 문명인 한국문명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권, 한국학연구원, 2015년 4월 13일.
 김종서,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2권,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4일.
 김종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3. 한사군(漢四郡), 한이군(漢二郡), 한삼군(漢三郡)의 실제 위치

1) 중국 역사 기록으로 본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의 실제 위치

필자는 한사군과 대방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 요동·요서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모든 중국 기록 중에서 한사군(漢四郡) 즉, 낙랑·임둔·진번·현도군과 낙랑·현도·대방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모든 중국 기록을 찾아서 연구·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요서군은 영정하 유역과 천진·북경 지역, ②요동군은 당산·진황도시 지역, ③현도군은 란하와 만리장성유적이 만나는 지점의 북쪽 지역, ④임둔·대방군은 요하 서쪽에서 산해관까지, ⑤낙랑군은 대릉하 유역, ⑥진번군은 대릉하 유역 동북방 지역까지 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연히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⁵⁷⁾

57)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종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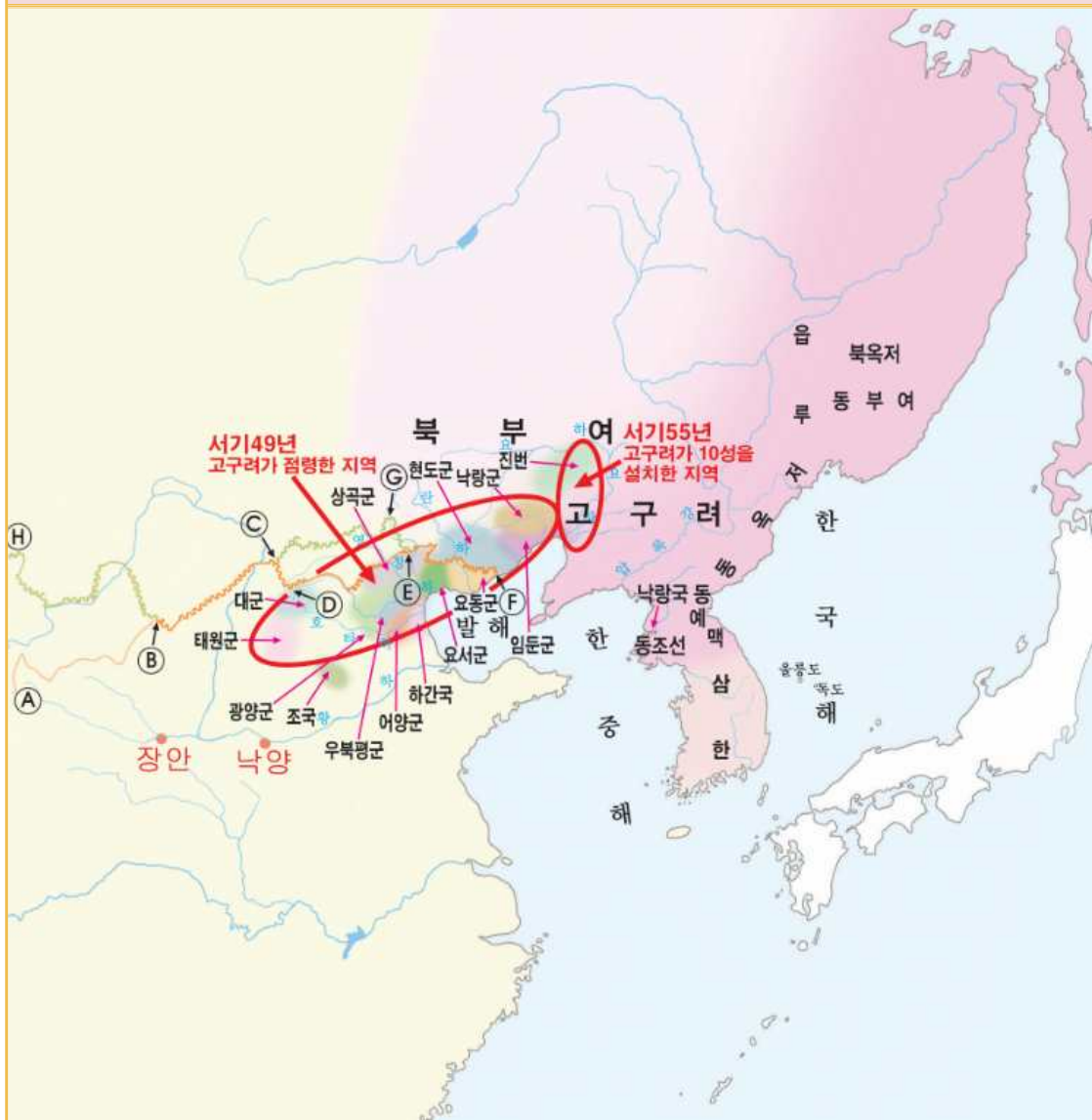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고구려와 후한의 동북 지역 군·국 위치도(서기 50년 전후)⁵⁸⁾



2) 수학적 위치 고증방법으로 본 한사군(漢四郡), 한이군(漢二郡), 한삼군(漢三郡)의 실제 위치

역사 기록에 대한 고증으로 밝혀 낸 한사군, 대방군, 요동·요서군의 위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증하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그 방법이 수학을 이용한 위치고증방법, 즉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이다. ① ‘수학적 위치 고

58)

증 방법' 중의 한 방법이 임의의 두 지점, 예컨대 A지점과 B지점을 수평직선거리와 도로굴곡지수를 도출하여 위치를 알 수 없었던 C지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었다고, ②'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 중의 두 번째 방법이 임의의 두 지점, 예컨대 A지점과 B지점의 고대도로의 길이를 도출하고, A지점과 B지점의 현대 도로(예; 고속도로)의 길이를 이용하여 알아낸 후, A지점과 B지점의 고대도로의 길이와 현대도로의 길이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 수 없었던 C지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었다고, ③'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 중의 세 번째 방법이 임의의 두 지점, 예컨대 A지점과 B지점의 지도상 거리를 측정하고, 그 지도상의 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 수 없었던 C지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었다.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을 이용하여 요서군, 요동군, 낙랑군, 임둔·대방군, 현도군, 진번군의 위치를 고증한 결과 고대 역사 기록을 연구·분석하여 고증한 위치와 일치하였다. 즉 요서군은 영정하 유역과 천진·북경 지역, ②요동군은 당산·진황도시 지역, ③현도군은 란하와 만리장성유적이 만나는 지점의 북쪽 지역, ④임둔·대방군은 요하 서쪽에서 산해관까지, ⑤낙랑군은 대릉하 유역, ⑥진번군은 대릉하 유역 동북방 지역까지 라는 것을 밝혀냈다. 당연히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⁵⁹⁾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으로 고증한 위치와 역사기록을 연구·분석하여 고증한 위치가 일치하였다.

59)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단군조선영토연구』 수정증보판, 한국학연구원, 2004.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종서, 『古朝鮮과 漢四郡의 位置 比定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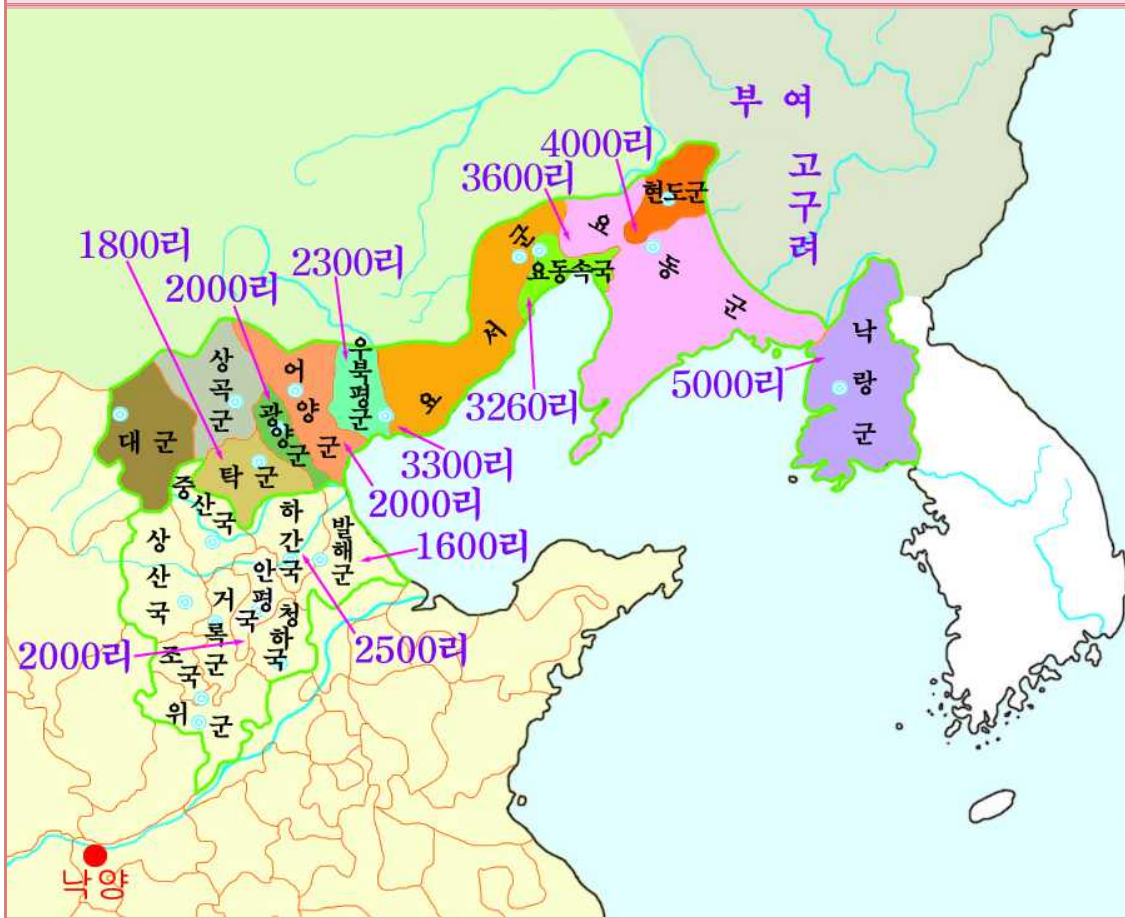
3) 왜곡되어 온 중국 동북지역 군국들의 실제 위치



낙랑·임둔·진번·현도·요동·요서군의 위치가 요하에서 영정하 사이에 있었으므로, 이들 6개현과 요동속국의 서·서남쪽에 있었던 중국 동북방에 있던 군(郡)·국(國)들의 위치 또한 실재했던 위치보다 동북방 멀리에 있었다고 왜곡되어 왔을 것이다. 때문에 수학을 이용한 이 3가지 방법 즉,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군(郡)·국(國)들인 위군(魏郡), 거록군(鉅鹿郡), 상산국(常山國), 중산국(中山國), 안평국(安平國), 하간국(河間國), 청하국(清河國), 조국(趙國), 발해군(勃海郡), 탁군(涿郡), 광양군(廣陽郡), 상곡군(上谷郡), 어양군(漁陽郡), 우북평군(右北平郡) 요동속국(遼東屬國) 등의 위치를 고증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위치 변동이 없었던 낙양에서 조국(趙國)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작게는 수백 리에서 많게는 1천 수백 리 이상 북·동북·동쪽 지역 먼 곳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60)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왜곡된 중국의 유주·기주 영역도⁶¹⁾



이 지도상에 표기한 거리는 『후한서』 「군국지」에 기록된 낙양에서 각 국·군 간의 거리 중, 낙양~안평국 간 2,000리, 낙양~하간국간 2,500리, 낙양~발해군간 1,600리, 낙양~탁군간 1,800리, 낙양~광양군간 2,000리, 낙양~어양군간 2,000리, 낙양~우북평간 2,300리, 낙양~요서군간 3,300리, 낙양~요동속국간 3,260리, 낙양~요동군간 3,600리, 낙양~현도군간 4,000리, 낙양~낙랑군간 5,000리를 표기한 것이다.

당연히 고구려 서쪽 국경선 또한 요하가 아니라 란하의 서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⁶²⁾

61) 中國社會科學院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中國地圖出版社, 1996, 40~41, 47~48, 61~62쪽.

62)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중국 역사 기록과 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16일, 190~324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중국 역사 기록과 지도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5년 2월 23일, 111~329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중국의 역사지도와 직선·곡선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2월 16일, 43~107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101~310쪽.

4) 낙랑유물들로 본 한사군의 실제 위치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에 반대하고, 고조선과 한사군이 요하 서쪽 지방에 있었다고 주장해 온 학자들이 몇 있었지만, 평양·평안도·황해도에서 발굴되었다는 낙랑·대방군 유물 유적에 대한 연구·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낙랑유물, 대방유물이라고 주장되어 온 봉니, 인장, 와당, 벽돌, 점제현신사비, 전범, 대구(帶鉤), 마구(馬具), 옥기(玉器), 호구부 등의 유물들에 대하여 연구·분석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유물들은 위조된 낙랑유물이었거나 한반도 북부 지방이 전한前漢·신신·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세력,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을 밝혀냈다. 청천강(혹은 압록강) 또는 요동반도까지 만리장성이 이르렀다는 주장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 만리장성의 동단(東端)인 갈석산(碣石山)은 산해관 북부의 장수산(長壽山)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63)

한사군(漢四郡:낙랑·임둔·진번·현도군), 한이군(漢二郡:낙랑·현도군), 한삼군(漢三郡:낙랑·대방·현도군)이 한반도에 있지 않고, 요하 서쪽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필자의 연구 내용은 방대한 반면,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양해 바란다.

4. 고조선과 한사군 위치로 본 패수(溟水)의 실제 위치

고조선이 중조선이 되고, 중조선이 후조선이 되었으며, 한(漢)나라가 후조선을 멸한 후 낙랑군이 되었고, 한(漢)나라가 후조선 인근의 조선 맹방(盟邦)들 중의 일부 영토에 임둔·진번·현도군을 설치하였으니, 『관자』와 『산해경』의 조선 관련 기록의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가 한반도가 될 수 없다는 것, 요

63)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3월 24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7일.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년 6월 8일.

하 서쪽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조선과 후조선의 서쪽 국경선이었던 패수(溟水)가 압록강이니, 청천강이니 하는 주장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패수는 4개가 있다. 제1의 패수(溟水)는 1923년 낙양에서 발굴된 ‘천남생의 묘지(墓誌)’의 ‘주몽(朱蒙)은 태양으로 잉태되었고, 패수에 임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기록에 나오는 패수이고,⁶⁴⁾ 제2의 패수는 낙랑군 『삼국사기』에 패수 혹은 패강으로 기록된 현재의 대동강이고, 제3의 패수는 한(漢)나라와 중조선의 국경선으로 위만이 한나라 연(燕) 땅에서 동으로 달아나면서 건넌 패수(溟水)이고, 제4의 패수는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패수이다. 이 4개의 패수 중에 제3의 패수와 제4의 패수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마천이 직접 지켜 본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 패수

사마천(司馬遷:서기전 145~서기전 86)은 서기전 109년부터 108년까지 1년간 벌어진 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었고, 한나라 태사(사관)들의 우두머리인 태사령으로서 한(漢)나라와 조선과의 전쟁의 발발, 전쟁의 진행, 전쟁처리 등을 모두 지켜보고 「조선열전(朝鮮列傳)」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또한 패수는 한나라 육군과 조선의 수비군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 강이다. 때문에 사마천이 패수에 대하여 남긴 기록은 아주 정확할 것이다.

(1) 위만의 망명 기록으로 본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 패수

‘패수(溟水)’라는 강이 등장하는 최초의 역사 기록은 『사기』 「조선열전」의 한나라가 일어나서 그곳(상하장)이 너무 멀어 지키기 어려웠다. 때문에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국경으로 삼았다.···위만이 무리 1,000여명을 모아서 망명하였다. 상투머리를 하고, 만이복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군) 요새를 나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⁶⁵⁾ 라는 기록이다.

64) 김종서, 『부여·고구려·백제사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09~311쪽.

65) 『史記』卷一百十五「朝鮮列傳」, “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溟水爲界···滿亡命聚黨千餘人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溟水居秦故空地上下鄣”

『사기』 「조선열전」을 쓴 사마천은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전쟁을 직접 지켜본 사관 중의 우두머리인 태사령이었다. 더욱이 패수는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국경선이었고, 위만 조선을 공격하는 한나라 육군이 수개월을 건너지 못한 위만조선의 전략 요충지였다. 따라서 사마천은 누구보다 패수의 위치, 패수의 흐르는 방향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그 사마천이 “한나라가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국경으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패수는 요동의 옛 요새와 바로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위만이 무리 1,000여명을 모아서 동쪽으로 달아나 요새를 나가 패수(溟水)를 건넜다.”라고 하였으니 패수는 요동의 요새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압록강, 청천강 하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는 강이다. 따라서 압록강이나 청천강은 패수가 될 수 없다.⁶⁶⁾

패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것은, ‘고조선 평양중심설’ ‘한사군 재한반도설’ 논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유일한 기록인, “조선이 진개에게 2,000리를 잃고 한반도의 약소국이 되었다.”는 『위략』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한>편에 주석으로 실린 『위략』에, “『위략』에 이르기를, ‘……연나라가 이에 장군 진개(秦開)를 보내어 조선의 서쪽 지방을 공격하게 하여, 2,000여리의 영토를 빼앗고, 만변한에 이르러 국경선을 삼았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이 쇠약해지게 되었다.……한나라 연(燕)지역은 조선과 더불어 패수(溟水)로서 경계로 하였다. 이어서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항복하여 들어갔다. 연(燕) 땅 사람인 위만이 호복을 입고 달아났다.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조선의 준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항복하였다.……’라고 하였다.”⁶⁷⁾는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은 『위략』의 기록에서 보듯이, “한(漢)나라 연(燕) 지역과 조선이 패수로서 경계로 하였고,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하였으니, 패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압록강과 청천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는 강이다. 따라서 압록강이나 청천강은 패수가 될 수 없다. 또 『위략』에, 연나라 진개가 조선의 서쪽 지방을 공격하여 그

66)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66~368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28~231쪽.

67) 『三國志』 卷三十 「烏丸鮮卑東夷傳」 <韓>, “魏略曰…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朝鮮與燕界於溟水 及綰反入匈奴 燕人衛滿亡命爲胡服 東度溟水 詣準降…”

영토 2,000리를 빼앗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략』의 기록 또한 조선이 2,000리 땅을 빼앗기고, 청천강 이남으로 축소되었다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신시·고조선 부정설’ 논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만약 조선이 2,000천리 영토를 빼앗기고, 청천강 이남으로 물러났다면, 조선은 서쪽 영토 2,000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북쪽 영토 2,000천리를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기』 「조선열전」과 『위략』의 기록은 패수가 압록강이나 청천강이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⁶⁸⁾

(2) 한나라의 조선 침략 기록으로 본 국경선 패수

압록강이나 청천강이 패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나라의 조선 침략전쟁 기록으로서도 알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 “좌장군(순체)은 조선의 패수서군(溟水西軍)을 공격하였지만 이전부터 깨트리지 못했다.……좌장군이(조선의) 패수상군(溟水上軍)을 깨트리고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 이르러 성 서쪽과 북쪽을 포위하였다. 누선장군 역시 왕험성 남쪽으로 가서 집합하였다. 그러나 우거왕이 굳게 왕험성을 지켰다. 때문에(한나라 군사들은) 수개월이 되도록 왕험성 아래 이르지 못하였다.⁶⁹⁾ 라는 기록이 있다.

68)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66~368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31~232쪽.

69) 『史記』 卷一百十五「朝鮮列傳」, “……左將軍擊朝鮮溟水西軍 未能破自前……左將軍破溟水上軍 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樓船亦往會 居城南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왜곡된 패수와 왕험성 위치도



위와 같은 『사기』의 기록에서 보듯이, ①좌장군 순체의 육군이 조선의 패수서군(泚水西軍)을 오랫동안 깨트리지 못했다. ②좌장군이 다시 조선의 패수상군(泚水上軍)을 깨트리고, ③왕험성 아래에 이르러 왕험성의 서쪽과 북쪽을 포위하였고. ④누선장군의 수군은 왕험성의 남쪽을 포위하였다. ⑤그러나 한나라의 육군과 수군은 수개월 동안 왕험성을 깨트리지 못했다. 이러한 일의 경과를 보았을 때, 한나라 육군이 패수서군을 깨트리지 못하고 공방전을 벌인 시간은 최소한 수개월 이상 경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좌장군의 육군은 패수서군(泚水西軍)이 아니라 패수상군(泚水上軍)을 깨트리고, 왕험성의 서쪽과 북쪽을 포위하였다고 하였다. 패수서군은 패수 서쪽 방어군을 말하는 것이고, 패수상군은 패수의 상류를 방어하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⁷⁰⁾

만약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논자들의 주장대로 패수가 청천강이거나 압록강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 압록강과 청천강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

70)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489~503쪽.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68~376쪽.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32~240쪽.

는 강이다. 때문에 청천강과 압록강의 서쪽은 강 하류가 된다. 그러므로 강 하류를 지키는 군대가 패수서군(溟水西軍)이 되고, 강 상류 방어군이 패수상군(溟水上軍)이 된다. ② 그런데, 청천강과 압록강의 하류는 평야지대이다. 수개월이 걸려도 평야지대인 강 하류를 지키는 패수서군을 깨트리지 못한 한나라 군대가, 평야지대인 강 하류공략을 포기하고 그보다 공략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대인 강 상류로 올라가 강 상류를 지키는 패수상군을 격파하러 갔다는 기묘한 논리가 성립된다. ③ 또한, 한나라 군대가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평양에 있던 성의 서쪽과 북쪽을 포위했다는 말은 수개월이 걸려도 함락시키지 못한 왕험성의 강력한 군대와 수개월동안에도 격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패수서군의 포위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말이 된다. 즉, 한나라 군대가 ‘독 안에 든 쥐’를 자처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무모한 군사 전략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한나라가 깨트린 패수상군이 곧 패수서군이라면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난다. 패수서군이 패수상군이라면 패수의 서쪽이 곧 패수의 상류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압록강과 청천강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므로, 두 강의 서쪽은 상류가 아닌 하류이다. 따라서 압록강이나 청천강이 패수라면 패수서군(溟水西軍)은 패수상군(溟水上軍)이 될 수 없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패수가 청천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패수서군(溟水西軍)이 패수상군(溟水上軍)이라고 하였다.⁷²⁾

어찌되었던 한나라 좌장군이 (조선의) 패수상군을 깨트리고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 이르러 성 서쪽과 북쪽을 포위하였고, 누선장군 역시 왕험성 남쪽으로 가서 집합하였다는 『사기』의 기록은 왕험성이 서쪽, 북쪽, 남쪽의 3면으로 포위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평양성은 대동강 북쪽에 있으므로 남쪽은 포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쪽으로 달아나면 백두대간(백두산으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면서 길게 뻗은 산맥)의 높고 깊은 산악지대이므로 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남쪽을 포위하고 동쪽을 포위하지 않았다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은 평양성이 왕험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³⁾

71)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489~503쪽.
 김종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68~376쪽.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32~240쪽.
 72) 이병도 역주원문,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56, 182~183쪽.
 73) 김종서, 『기자·위만조선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489~503쪽.



이런 문제점을 간과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 남쪽, 대동면에 있는 토성을 ‘낙랑토성’, ‘낙랑군치’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논자들은 이 토성을 왕험성이라고 주장하여왔다. “대동면 토성 유적도”는 1,003분의 1축척 지도이다. 이 지도의 적색 굵은 실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토성내부이고, 토성의 바로 북쪽이 대동강이다. 이 토성의 가장 긴 쪽의 동서 길이가 약 700m이고, 가장 긴 쪽의 남북 길이가 약 700m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토성을 수군 5만을 포함한 수십만의 한

나라 군대에 맞서 1년을 싸운 왕험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희극적이다. 왕험성 안에는 한나라에 보내려고 하였던 말 5,000필 보다 많은 말과, 한나라로 보내려고 했던 1만 군사보다 수배 이상 많은 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낙랑토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대동면 토성’ 규모는 조선의 수만 이상의 군사와 5,000필 이상의 말이 약 1년을 먹고, 입고, 자면서 한나라 수십만 군사의 포위 공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또한

김중서,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368~376쪽.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32~240쪽.

74) 關野貞 외 5인, 『樂浪郡時代の遺蹟 圖版上冊』 「地圖」 “樂浪郡治遺蹟 圖”, 朝鮮總督府, 大正十四年(1925)

대동면 토성 유적도에서 보듯이 이 대동면 토성의 바로 북쪽은 대동강 깊은 물이라 포위할 필요도 없고 포위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동쪽을 포위하지 않으면 산악지대로 달아나기에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토성은 한나라 육군이 왕협성이 서쪽, 북쪽을 포위하고, 한나라 수군이 남쪽을 포위하였다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과 배치되는 성이다. 한나라 군대가 동쪽을 제외한 왕협성의 북, 서, 남 3방향만 포위하였다는 것은, 왕협성 동쪽이 바다·절벽 등처럼 달아날 곳이 없는 지형이거나, 왕협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한 후 성 밖에서 기습 공격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가진 곳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대동강 북쪽의 평양성이나 대동강 남쪽의 토성은 왕협성이 될 수 없고, 압록강이나 청천강은 패수가 될 수 없다.⁷⁵⁾

『사기』 「조선열전」에 기록된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협에 대하여 현도군과 낙랑군이 실존할 당시인 후한 영제(168~188) 때까지 학자인 응소가 주석을 달기를 “요동군 험독현에 조선의 옛 도읍이 있다.”⁷⁶⁾고 하였다. 또 동진(317~420) 효무제(376~396) 때 학자인 서광은 “창려(昌黎)에 험독현(險瀆縣)이 있었다.”⁷⁷⁾고 하였다. 응소와 서광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①후조선의 수도인 왕협성이 있던 곳에 요동군 험독현을 설치하였거나, ②중조선이나 후조선이 요동군 험독현 지역을 빼앗아서 왕협성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③그 왕협성이 있던 ‘험독현’ 지명이 후에 ‘창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수서군(溟水西軍)이 방어하던 지점이 패수상군(溟水上軍)이 방어하던 지점이 되는 지점을 창려 서쪽의 란하로 볼 수 있다. 란하 하구로부터 창려 서쪽의 란하는 상류도 되고 서쪽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패수는 란하의 서쪽에 있는 강으로 서쪽 혹은 북서쪽, 또는 남서쪽에서 흘러오는 강일 것이다. 영정하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강이었을 수도 있다.⁷⁸⁾

7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32~241쪽.

76) 『史記』 卷一百十五「朝鮮列傳」의 都王險에 대한 『史記索隱』의 주석. “應劭注 地理志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77) 『史記』 卷一百十五「朝鮮列傳」의 “都王險”에 대한 『史記索隱』의 주석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78)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2~86쪽.

패수로 추정되는 란하·대릉하 위치도⁷⁹⁾



2)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강 패수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⁸⁰⁾고 하였다. 허신은 후한(서기 25~220년)의 명제(서기 58~75년)때부터 화제(서기 89~104년)때까지 활동하던 학자이다. 그러므로 패수와 낙랑군 누방현이 실존하던 시대를 살던 사람이다. 따라서 허신의 패수에 대한 증언은 정확할 것이다.

79)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1)』, 한국학연구원, 2014년 6월 17일, 241쪽.

80) 許慎, 『說文解字』 「卷十一上」 〈溟〉字部, “水出樂浪鏤方 東入于海”

낙랑군 패수로 추정되는 소릉하·대릉하 위치도



또 『수경주』의 원전인 『수경』에,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⁸¹⁾고 하였다.

위 『수경』의 패현은 패수현에서 ‘수(水)’자가 생략된 것으로 패수현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낙랑군에는 패현이라는 현이 존재하지 않았고, ‘패수현’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대에 패현이라는 현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경』의 편찬자는 패

81) 酈道元, 『水經注』 「卷十四」 〈淇水〉, “淇水出樂浪鏤方縣 東南 過臨淇縣 東入于海…許慎云 淇水出鏤方 東入海”

수와 낙랑군 누방현이 실존할 당시의 사람이다. 따라서 『수경』의 패수에 대한 기록은 정확할 것이다.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패수현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82)”라는 기록이 있다. 『수경』에는 패수가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한서』에는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달리 방향을 기록한 이유는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던 패수가 패수현에 이르러 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쪽(혹은 서남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수가 패수현에서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른 것만 알 수 있을 뿐, 증지현에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는지,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는지,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제 『설문해자』 『수경』 『한서』의 패수를 종합하면, ①패수는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패수현에 이르고, ②패수현에 이른 패수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③서쪽으로 흘러서 증지현에 이르러 ④(동쪽, 동남쪽, 남쪽, 서남쪽, 서쪽 중의 한 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임을 알 수 있다.⁸³⁾

『설문해자』 『수경』 『한서』의 패수에 대한 기록은 청천강(혹은 압록강)이 패수라고 주장해온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논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청천강이나 압록강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동남쪽으로 흐르는 구간도 없고, 동쪽으로 흐르는 구간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 논자들은 청천강(혹은 압록강)을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었던 패수와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패수현을 지나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 낙랑군의 패수를 동일한 강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임이 명백하다.⁸⁴⁾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패수였고, 조선과 경계를 마주한 한나라의 군은 요동군이였다. 패수는 요동군의 동쪽 경계와 조선의 서쪽 국경이 되었으므로 패수는 한나라 요동군 영역과 조선의 영토를 양쪽으로 접하면서 흐를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선 영토에 낙랑군을

82)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 〈樂浪郡〉, “樂浪郡…泃水 [水西至增地入海]”

83)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84)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설치하였으므로,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인 패수가 낙랑군의 패수와 동일한 강이라면, 패수는 낙랑군 영역과 요동군 영역을 양쪽으로 접하면서 흐를 수밖에 없다.

즉,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 노릇을 하던 패수와 누방현·패수현·증지현을 흘러 지나가는 낙랑군의 패수가 동일한 강이라면, 누방현·패수현·증지현은 낙랑군 25개 현 중에서 가장 북쪽 지역에 있었거나 가장 서쪽 지역에 있어야 하고, 패수는 누방현·패수현·증지현 영역의 내부를 지나가는 강이 아니라 누방현·패수현·증지현의 북쪽 경계선 혹은 서쪽 경계선을 지나가는 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패수는 요동군의 조선 쪽 경계선에 접한 요동군의 여러 속현도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설문해자』 『수경』 『한서』 등에서는 패수를 낙랑군 속현 내부를 흘러 지나가는 강이 아니라, 패수는 요동군과 낙랑군 경계를 지난다. 혹은 패수는 (낙랑군과 요동군의) 2개 군을 지난다고 기록하였어야 맞는 것이다.⁸⁵⁾

실제로 반고는 『한서』 「지리지」에서 2개 이상의 군을 지나가는 강에 대해서는 그 지나가는 군의 수를 표기하고 있다. 2개 군을 지나가는 강은 2개 군을 지난다. 3개 군을 지나가는 강은 3개 군을 지난다. 등처럼 강이 지나가는 군의 숫자를 표기하고 있다. 그 예를 『한서』 「지리지」 〈대군〉 조의 “대군…영구현 [구하는 동쪽으로 흘러 문안현에 이르러 대하로 들어가는데, 5개 군을 지나간다…] …광창현 [래수는 동남쪽으로 흘러 용성현에 이르러 하로 들어가는 데 3개 군을 지나간다…] …로성현 [호지하는 동쪽으로 흘러 삼합현에 이르러 호지로 들어가 나누어져서 9개 군을 지나간다…] …종하는 동쪽으로 흘러 문안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6개 군을 지나간다.]”⁸⁶⁾ 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란의 분석으로써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는 조선의 영토 내부를 흐르는 패수 즉, 낙랑군 누방현, 패수현, 증지현 등의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패수와 동일한 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⁸⁷⁾

앞에서 『설문해자』 『수경』 『한서』의 패수의 기록에서 ①패수는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패수현에 이르고, ②패수현에 이른 패수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③서쪽으로 흘러서 증지현에 이르러 ④(동쪽, 동남쪽, 남쪽, 서남쪽, 서쪽 중의 한 방향으로 흘러)

85)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86) 『漢書』 卷二十八下「地理志」〈代郡〉, “代郡…靈丘 [滹河東至文安入大河過郡五…] …廣昌 [涑水東南至容城入河過郡三…] …鹵城 [虜池河東至參合入虜池別過郡九…從河東至文安入海過郡六]”

87)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강 흐름과 크기를 가진 강으로는 요녕성 서부지역, 즉 요하의 서·남쪽에 있는 소릉하와 대릉하를 들 수 있다. ‘낙랑군 패수로 추정되는 소릉하·대릉하 위치도’에서 보듯이 ‘낙랑군의 패수1(누방현1, 패수현1, 증지현1을 이은 구간)’인 소릉하는 동남쪽으로 흐르는 구간, 동쪽으로 흐르는 구간, 서쪽으로 흐르는 구간, 서남쪽으로 흐르는 구간을 전부 갖춘 흐름을 갖는 강이다. 소릉하 상류유역은 낙랑군 누방현의 관할지역이었을 것이고, 패수현은 소릉하가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이전부터 방향을 전환한 이후까지의 소릉하 유역을 관할하였을 것이고, 증지현은 소릉하의 하류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 만약 소릉하가 낙랑군 패수가 아니라면, ‘낙랑군 패수로 추정되는 소릉하·대릉하 위치도’에서 보듯이 ‘낙랑군의 패수2(누방현2, 패수현2, 증지현2를 이은 구간)’인 요녕성 조양시 동쪽의 대릉하 중류 유역으로부터 중류 구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⁸⁸⁾

『후한서』 「군국지」에, 파군이 낙양 서쪽 3,700리에 있다고 하였고, 촉군은 낙양 서쪽 3,100리에 있다고 하였다.⁸⁹⁾ 또한 회계군은 낙양 동쪽 3,800리에 있고, 오군은 낙양 동쪽 3,200리에 있다고 하였다.⁹⁰⁾ (중국사회과학원이 만든 『중국역사지도집』 등에서 보듯이) 파군과 촉군은 의심할 여지없이 낙양의 서남쪽에 있었고, 회계군과 오군은 틀림없이 낙양의 동남쪽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군과 촉군을 낙양 서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회계군과 오군을 낙양 동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고대 역사 기록에서 이렇게 방향을 서남(西南), 동남(東南) 등처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인 서(西), 동(東)처럼 기록한 예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중국의 방향 기록 전통을 생각하면 패수에서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들어간다는 『한서』 「지리지」의 서쪽을 서남쪽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릉하 중류도 낙랑군의 패수가 될 수 있다. 즉, 서남쪽으로 흐르는 대릉하의 패수현 구간에서 증지현 구간을,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이 이룬다고 『한서』 「지리지」에 표기한 것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는 란하나 란하 서쪽의 강이었고, 낙랑군을 흐르던 패수는 대릉하 중·하류이거나 소릉하이였음이 틀림없을 것이다.⁹¹⁾

88)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89) 『後漢書』 志第二十三「郡國五」〈益州〉, “巴郡〔…雒陽西三千七百里〕…蜀郡〔…雒陽西三千一百里〕”

90) 『後漢書』 志二十二「郡國四」〈揚州〉, “會稽郡〔…雒陽東三千八百里〕…吳郡〔…陽東三千二百里〕”

91) 김종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2)』, 한국학연구원, 2014년 8월 12일, 86~93쪽.

정약용은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하였고,⁹²⁾ 한백겸은 청천강이라고 하였으며,⁹³⁾ 이병도는 청천강이라고 하였고,⁹⁴⁾ 김철준은 압록강이라고 하였으며,⁹⁵⁾ 노태돈은 청천강이라고 하였고,⁹⁶⁾ 송호정도 청천강이라고 하였다.⁹⁷⁾ 이들은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서 증지현에 이른 후 계속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에는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로 들어가는) 그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서』 「지리지」의 패수를 가지는 패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한서』 「지리지」의 패수를 근거로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맺음말

현재 한국고대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이다. 그러나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은 거의 없다. 반면 대부분의 고대기록들은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고 요하 서쪽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고조선이 중국의 해내 지역인 요하 서쪽 지역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관자』의 기록과 『산해경』 「해내북경」의 기록을 배척하거나 왜곡하고, 고조선이 중국의 동해 안쪽 북해의 안쪽인 요하 서쪽 지역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산해경』 「해내경」의 기록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인 패수가 서쪽

92) 丁若鏞, 『我邦疆域考』 卷一 「朝鮮考」

93) 韓百謙, 『東國地理志』 「樂浪郡」

9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5, 71쪽.

이병도 역주,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1956, 181~183쪽.

95) 김철준, 『한국고대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26쪽.

96)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고조선중심지변천에 대한 연구」, 사계절출판사, 2000, 64~70쪽.

97) 송호정, 『한국사속의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344~352쪽.

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임을 분명히 한 증언들인 ①패수가 실존할 당시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위만이 한나라 연(燕) 지역에서 조선으로 달아날 때에,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가 패수를 건넜다고 한 증언, ②『위략』의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넜다는 기록, ③역도원이 위만이 패수의 서쪽에서 조선에 이르렀다고 한 말 등을 철저히 배척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는 강인 압록강 혹은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강인 패수가 실존할 당시의 기록 3가지 중에 ①『설문해자』에서 허신이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 기록, 『수경』에,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한 기록을 배척한 주장이다. 고조선과 낙랑군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평양·평안도는 물론이고, 황해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까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없기 때문에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중요 증거를 배척한 것이다.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패수가 실존할 당시의 기록인 위 5개의 패수에 대한 기록을 충족시킬 강이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는 존재할 수 없자 이 기록들은 배척하고, 『한서』 「지리지」에서 반고가 “패수가 서쪽으로 흘러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한 주석만을 사료로 채택하여 패수가 청천강이니 압록강이니 하여왔다. 그러나 이 반고가 말한 패수는 증지현에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반고가 말한 패수도 패수가 압록강이나 청천강이 패수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지면 관계상 소개하지 못했지만 한사군을 비롯한 전한(前漢)·신(新)·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의 동북 지방의 군·국들의 위치 관련 기록을 고증해본 결과도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을 수 없었고, 요서군은 요서 지역에 있을 수 없었으며, 요동군도 요동반도에 있을 수 없었다. 이어서 고대도로와 현대도로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지도상의 단순거리비교로 위치를 찾는 방법, 도로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등의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을 창안하여 중국 동북 지역 군국의 위치를 고증한 결과 또한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사기』 『전국책』 등의 사료로 본 고조선의 위치도 요하 서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 낙랑·대방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실증적인 유물로 신봉되어 온 봉니, 인장, 와당, 벽돌, 점제현신사비, 전범, 대구(帶

鉤), 마구(馬具), 옥기(玉器), 호구부 등의 유물들은 조작된 유물이거나 한반도 북부 지방이 전한(前漢)·신(新)·후한(後漢)·위(魏)·서진(西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세력,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을 밝혀냈다.

따라서 ‘고조선·한사군 재 한반도설’은 고조선과 한사군이 실재할 당시에 씌어진 중국의 고서들인 『사기』 『한서』 『후한서』 『전국책』 『관자』 『산해경』 등의 기록에 배치되는 학설일 뿐만 아니라 비객관적, 비논리적, 비실증적, 비과학적인 학설로 폐기되어야 마땅한 학설이다.

〈토론 1〉

요서지역 중국 군현과 패수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이후석 (송실대)

요서지역 중국 군현과 패수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이후석 (송실대)

1. 논의의 전제

‘泚水’는 『史記』 朝鮮列傳¹⁾의 기록에서 노관이 연왕으로 재임하던 당시, 즉 서한 초기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로서 처음 등장한다. 이와 같은 ‘패수’ 관련 기사는 『三國志』 東夷傳 韓條에 인용된 『魏略』²⁾에도 나타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史記』 朝鮮列傳에는 ‘패수’가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건넌 강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만조선 멸망 당시 고조선과 한나라의 접전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중국 고대 문헌에는 ‘패수’의 흐름과 관련된 기록들이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자가 어떤 사료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패수’의 위치는 달리 설정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고조선-위만조선의 중심지와 영역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비정되고 있어 문헌 자료만으로는 고조선사를 체계적이면서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史記』 등의 사료 외에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조선사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고학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조선사를 복원할 때 상식적이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전제들에 동의해야 한다. 먼저 고조선 중심지나 영역에 대한 많은 논쟁에

1) 及漢以盧縮爲燕王，朝鮮與燕界於泚水。 (『史記』 朝鮮列傳)

2) 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泚水爲界，屬燕。 (『三國志』 東夷傳 韓所引 『魏略』)

도 불구하고 고조선이 문헌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요령식 동검문화(또는 비파형동검-세형동검문화)의 범주에서 고조선을 다루어야 한다.

당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요령지역에는 중원계의 중원식 동검문화와 북방초원계의 유병식 동검문화, 그리고 토착계의 요령식 동검문화가 모두 보이지만 다른 문화가 일부 요소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요령식 동검문화는 주된 흐름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조선과 주변 집단의 상호작용 또는 물질문화 교류 과정에서 수용된 외래 문화 요소들이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검이나 토기 등과 같이 주민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고조선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묘제, 유물 등의 물질문화가 燕秦漢 계통의 중원문화 일색으로 변동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고대조선³⁾의 문화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물질문화 자료들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들은 출토 맥락에 의거해야 한다. 출토맥락이란 유구나 유물이 ‘제작-유통-폐기’되는 과정적인 정황으로, 출처(provenance)와 매체(matrix), 그리고 공반관계(association)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당 자료가 확인될 때 그 기원과 유래, 출토 층위와 공반유물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출토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고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화변동이 확인될 때 시간적으로 가깝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하는 경우 토착문화와 외래문화가 혼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지양해야 한다. 이를테면 요서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동단검묘가 밀집되어 있는 건창동대장자 유적에는 중원문화 요소가 토착문화 요소들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국 후기(서기전 3세기대) 이전에는 비중원계 묘제, 동검, 토기 등이 함께 확인되는 예가 많아 전국 전기(서기전 4세기대)부터 연나라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하였다고 보는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일부 시각들은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요동지역에서 명도전을 포함하는 유구가 확인되는 경우 중원문화 요소만이 공반되는 것은 유이민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고, 토착문화 요소들과 공반되는 것은 토착민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명도전은 이동성이 높은 금속 화폐여서, 그 자체의 분포 범위를 특정 정치체의 영역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발표 주제와 발표문의 주된 시공간적 단위

3) 이하 본문에서 고조선-위만조선(또는 전-중-후조선)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 ‘고대조선’이라 통칭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전국 후기(서기전 3세기대) 전후의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주요 고고학적 정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러 한다. 다만 발표문은 ‘고대 조선-한사군 재요서설’에 입각하고 있고, 인용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생략되었거나 소략하다. 그러므로 토론문에서는 요서지역에서 출토되는 관련 자료들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토론자의 견해를 제시한 후 발표자의 견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러 한다.

2.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중국 군현 관련 쟁점에 대한 몇 가지 논의

1) 전국후기 이전 고조선계 물질문화와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범위(도면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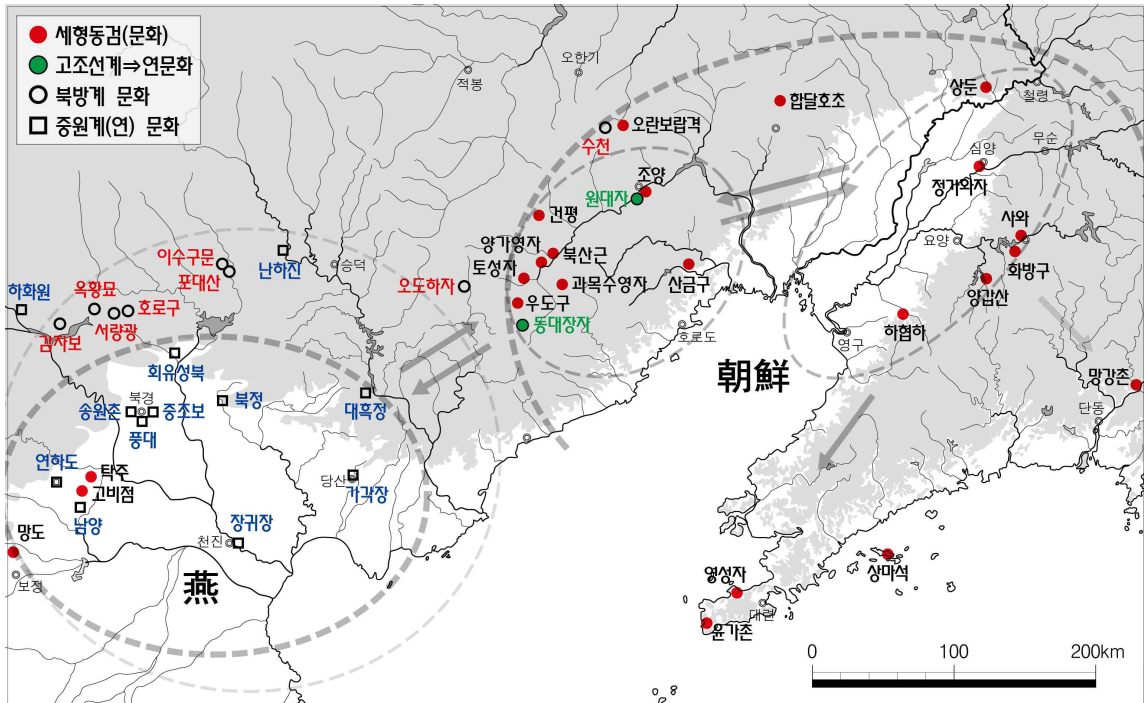
『史記』匈奴列傳 등에 보면 전국시대 조나라는 武寧王(서기전 325~299년 재위)때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을 축출하고 장성을 쌓은 후에 운중(雲中), 안문(雁門), 대군(代郡)의 3군을 설치한다.⁴⁾ 또한 전국시대 연나라는 昭王(서기전 311~279년 재위)때 동호(東胡)를 축출하고 나서 장성을 쌓은 후에 상곡(上谷),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遼東)의 5군을 설치한다.⁵⁾ 임호, 누번, 동호는 통칭하여 3호라고도 하였는데, 원래 현재의 산서성과 하북성의 북쪽에 위치했던 북방초원계 집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산서-하북성의 북쪽에는 북방초원계 물질문화가 유행하였다가 전국 중기 이후에는 삼진 또는 연계 중원문화가 대거 확산된다. 특히 연나라의 북쪽 연산산맥 일대에서는 ‘옥황묘문화(또는 군도산유형)’가, 서요하 상류 방면에서는 ‘정구자유형’이 전국 중기까지 유행하였는데, 이후 시차를 두면서 사라진다. 한편 이때 요서지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의 최후 단계로 평가되는 동대장자유형이 유행하고 있었으며, 역시 전국 후기 이후에는 연문화가 토착문화를 대체하는 양상들이 확인된다.

4) 武寧王北破林胡樓煩築長城，置雲中，雁門，代郡。（『史記』匈奴列傳）

5)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史記』匈奴列傳）

이와 같은 문화변동에는 몇 가지 주목되는 현상들이 확인된다. 먼저 묘광 주축이 남북방향이며, 두향(북향) 쪽에 유물들이 부장되는 목곽묘가 대거 확산된다. 또한 토착 동검들은 더 이상 없는 대신 전국연계 유물 일색으로 부장유물이 변화하며, 명도전과 전국연계 철기들도 부장되기 시작한다. 전국연계 반와당이 사용되는 건물지도 처음으로 조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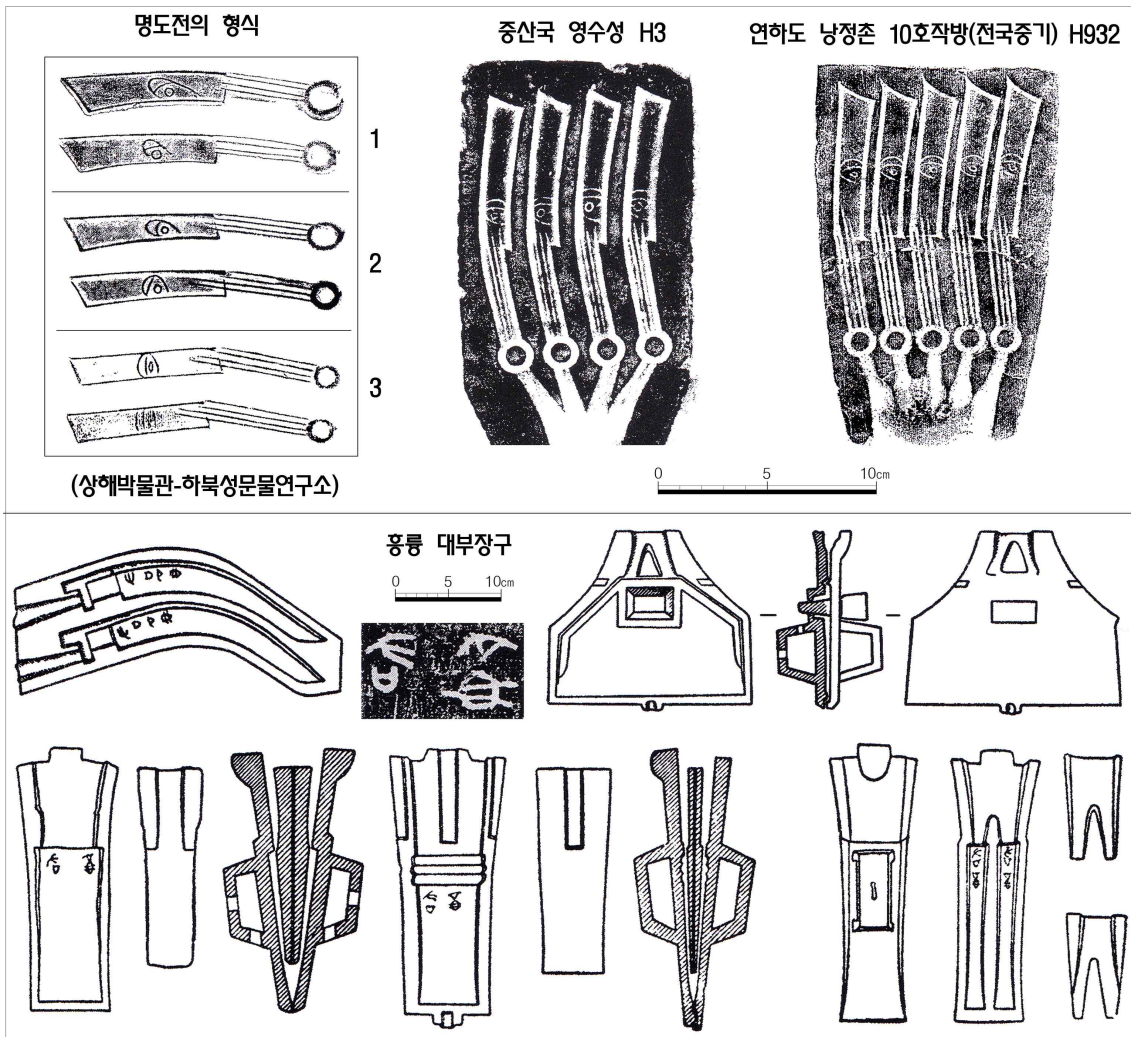


〈도면 1〉 전국시대(서기전 5~4세기) 고조선계-연계-북방계 유적 분포도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의 10쪽과 19쪽의 도면(산해경 관련 도면)에는 하북 북부~요서 지역을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고조선이 서기전 425년에 멸망하였다고 보는 이유(9쪽)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춘추시대에 한정하면 이 지역에는 하북 남부 북경-당산 일대에는 중원계통 문화가, 하북 북부 연산일대의 옥황묘문화, 서요하 상류 일대의 ‘하가점상층문화’, 태릉하-소릉하 이대의 ‘십이대영자문화’가 유행했다. 발표지는 이 4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보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주민들은 신석기시대 후기 이래 서로 교류하였음을 쌍타자문화의 토기류나 산동반도의 요령식 청동기를 통해 알 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인은 요동반도를 ‘해외지역’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 전국연의 명도전과 연계 철기(도면 2 참조)

명도전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금속화폐로 이해되나 최근 일부 형식의 경우 고조선이 제작했던 화폐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발표자의 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내학계 역시 많은 연구자가 요령지역, 특히 요동지역이나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 확인되는 명도전의 경우 사용자는 연계 주민 뿐만 아니라 토착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요령지역과 서북한지역의 것은 전국 후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토착문화 유적에서 명도전 용범이 출토되지 않아 직접 제작했을 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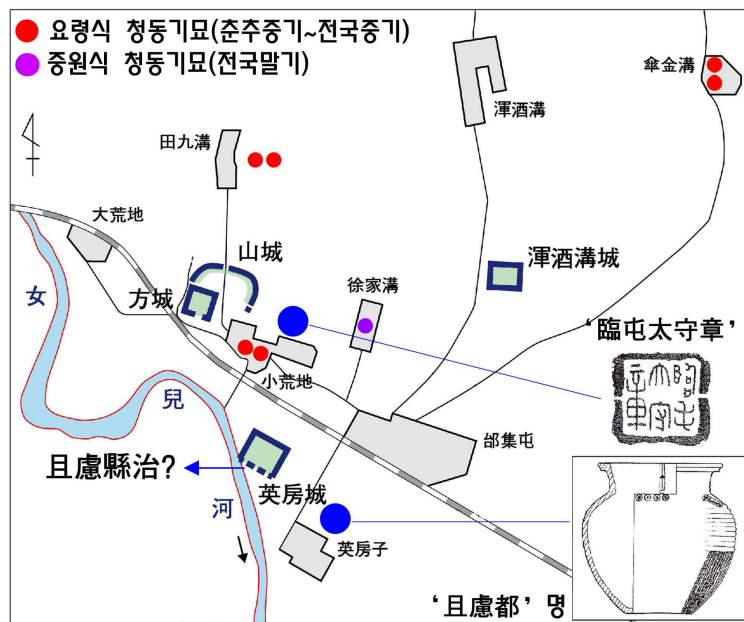
〈도면 2〉 하북지역의 명도전 용범과 전국연계 철기 용범

한편 연나라의 燕下都(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등)에서는 비교적 이른 형식의 명도전 도제용범이 전국 중기 수혈(낭청촌 10호작방 H932)에서 출토되었으며, 침수도로 볼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하여 명도전과 포전 등은 약 3만매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산국(서기전 296년 멸망)의 靈壽城(河北省文物研究所 2005)에서도 수혈(H3)에서 비교적 이른 형식의 명도전 도제용범이 출토된 바 있고, 하북지역 출토 명도전은 하북성문물연구소와 상해박물관을 비롯한 지역 박물관에 다량 소장되어 있어 수량 역시 적지 않다. 즉 하북지역에는 요령지역보다 이른 전국 후기 이전 단계의 명도전과 그 용범이 존재한다.

또한 명도전과 자주 공반되는 전국연계 주조철기들은 이조철대 등의 특이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에 속한 것과 쉽게 구별되는 것이 많다. 북경 동북쪽에 위치하는 하북 흥릉 대부장구 유적(鄭紹宗 1956)에서 이미 오래 전에 철제용범이 다량 출토된 바 있다. 유적 주변에는 채광유적도 위치하고 있어 전국시대 연나라에서 철제농공구를 대량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제용범에는 ‘우름(右廩)’명의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廩’은 일종의 창고로서 전국시대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확인되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명도전과 철제농공구는 전국 후기 이후 하북지역에서 요령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금서 태집둔과 조양 원대자 일대 고성과 요서 군현(도면 3~5 참조)

- ‘臨屯太守章’ 봉니, ‘且慮都’명 유물, ‘西城都’명 또는 ‘柳王城’명 유물



〈도면 3〉 소항지고성과 영방고성의 위치와 주변 유적

금서(現 호로도) 태집둔 일대에는 춘추전국시대의 요령식 청동기 부장묘와 전국시대 토성, 한대 토성이 함께 확인되어 토착문화가 중원문화로 이행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토착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보고서의 2기와 관련되는 유적인데, 전구구, 소항지, 산금구 유적이 확인되어 있다. 비파형동검부터 요령식 동과까지 출토되어 춘추 중기부터 전국 중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옥황묘문화 계통의 동물형패식이 출토되어 전국 초기에는 주변 문화와도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원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보고서의 3기인데, 보고자는 다시 전국말~서한초의 연진문화와 관련되는 3-1기와 전형 서한문화와 관련되는 3-2기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지역의 서가구 전국묘(錦州博物館 1983)는 3-1기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최근 ‘臨屯太守章’ 봉니가 출토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소항지촌 일대를 서한 臨屯郡(서기전 108~82년)과 관련시켜 보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발표자의 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임둔태수장’ 봉니는 소항지고성의 동쪽 외곽 구릉 아래에서 특정 출토맥락 없이 수습되었으며, 그 연대는 3-2기(한대문화)의 늦은 단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토 유물들을 보면 ‘임둔태수장’ 봉니 등장 이전부터 소항지고성(방성)과 영방고성이 축조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출토유물에는 명도전과 일화전 등과 함께 전국연계 토기류와 동물문반와당이 주목되며, 무엇보다 ‘且慮都’명 도량기는 전국말~전한초에 연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且慮’는 『漢書』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서한 요서군 14개현 가운데 ‘且慮縣’을 가리키는 명칭이며, ‘都’는 연나라의 행정조직 단위 명칭이다. 그러므로 서한 전기 전에 이미 기능했던 소항지고성과 ‘且慮都’명 도량기와 전국연계 유물들은 ‘임둔태수장’ 봉니 등장 전에 태집둔 일대가 연나라와 한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금서 태집둔 일대는 서기전 100년경 전후에 설치된 임둔군보다도 그 이전에 설치된 요서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양 원대자 유적에도 춘추전국시대의 요령식 청동기 부장묘와 전국 후기~서한 전기의 방형토성이 확인되어 토착문화가 중원문화로 이행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토착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십이대영자 묘지(춘추), 원대자 묘지(전국)인데, 특히 원대자의 전국 분묘에서 토착문화가 중원문화로 대체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도면 4〉 원대자와 유성 유적의 위치

중원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원대자 무류묘(전국 후기)와 기류묘(전국말~서한초), 신류묘(서한)로 파악되며, 무류묘의 일부를 제외하면 중원문화 일색으로 변화되어 있다. 특히 기류묘(81YM29)에서는 ‘西城都’명 도량기가 2점이나 출토되었으며, 유적(유지)에서는 ‘柳王城’명 도제박자 등의 명문 유물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즉, 조양 원대자 일대는 서한 요서군의 14개현 가운데 ‘柳城縣’에 해당되며, 전국 말기 이래 연나라와 한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5〉 금서 소황지고성과 영방고성 출토유물

4) 능원 안장자고성과 우북평군 관련 자료(도면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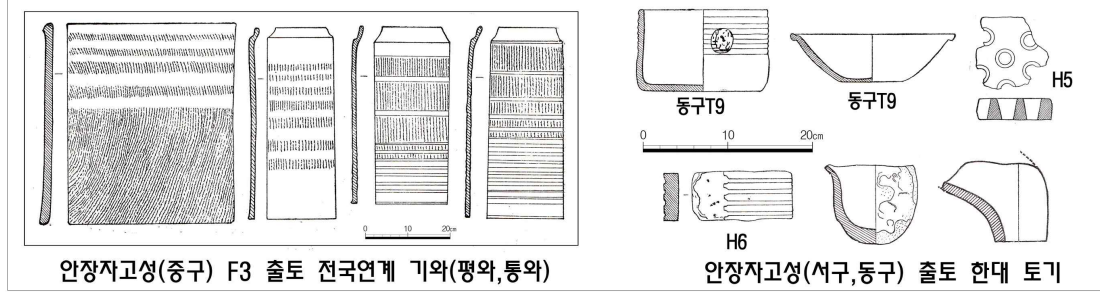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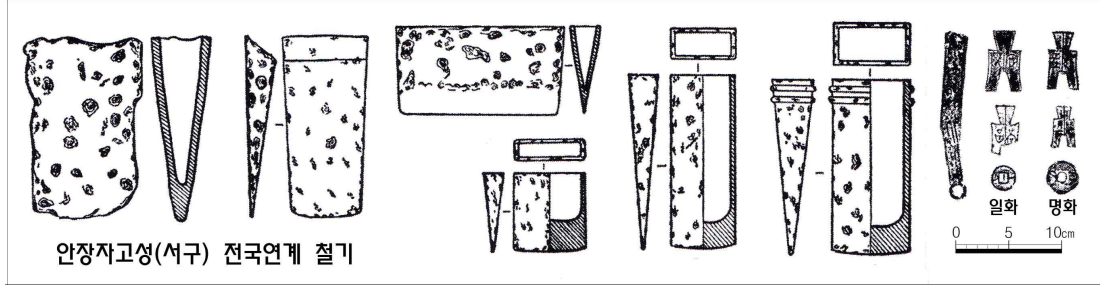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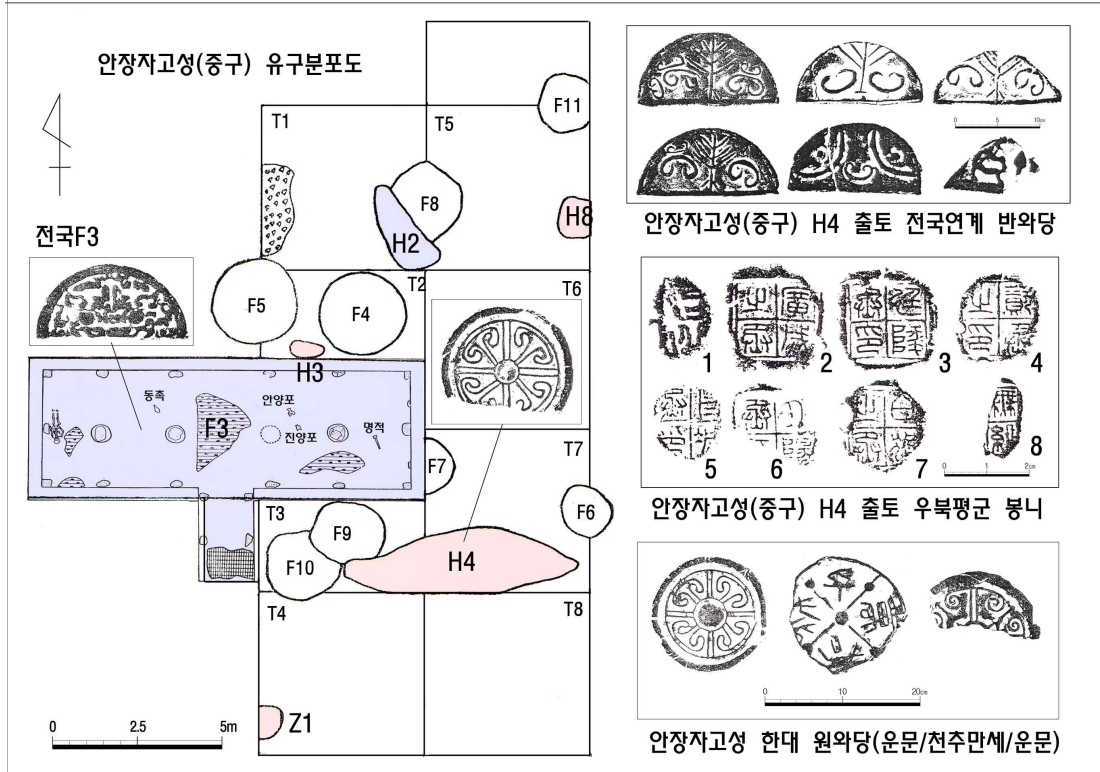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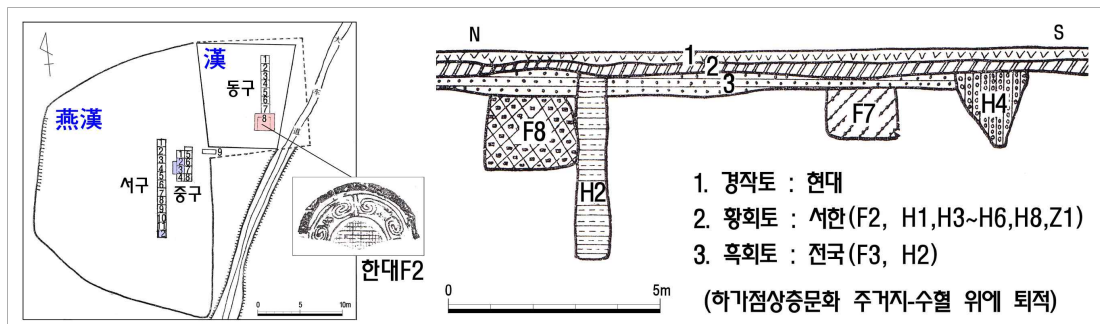
능원 일대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주로 십이대영자문화(또는 비과형동검-세형동검문화)에 속한 지역이다. 전국말~서한초 단계에는 중국 군현이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나, 右北平郡이 설치되었다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발표문의 30쪽을 보면 玄菟郡의 북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국 현재 견해로만 보면 능원 일대는 전국 후기 이후 우북평군에 속한 지역이었거나, 서한 중기 무렵 현도군에 속한 지역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만 능원 안장자고성(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등의 자료들을 보면 전자에 속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안장자고성은 능원시의 남쪽 대릉하의 남변에 위치하는 토성으로 전국연계 유물과 서한시기 유물이 출토되는 大城과 서한 이후 유물들이 출토되는 小城으로 이루어진 이중성의 구조를 나타낸다. 성내부는 대성의 西區와 中區, 소성의 東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중구 층위 조사결과 하가점상층문화 단계 유구면을 비롯하여 성내부가 정지된 후 전국시대 유구(F3, H2)들이 조영되었으며, 이후 서한대의 유구(F2, H1, H3~H6, H8, Z1)들이 조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후기 단계 유구 이후에는 연한 계통의 중원문화 일색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후기 이후 본성(大城)이 축조되었으며, 3호 기와건물지(F3)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류는 대부분이 전국연계 주조철기이다. 이후 서한 전기에는 小城이 축조되었으며, 이때에는 2호 기와건물지(F2)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류는 대부분이 한대 주조철기와 단조철기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4호 수혈(H4)인데, 전국연계 반와당과 서한대의 원와당을 비롯하여 다수의 우북평군 관련 봉니가 확인되어 전국말~서한초 이후에는 안장자고성이 문서행정과 관련된 주요 거점임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던 소항지고성 동쪽 밖의 구릉 아래에서 수습한 ‘임둔태수장’ 봉니 1점을 임둔군이 설치되었다는 근거로 이해하였다면, 안장자고성 수혈 속의 우북평군 관련 봉니들도 우북평군 설치 근거로 보아야만 한다.

〈표 1〉 능원 안장자고성(중구) 4호수혈(H4) 출토 한대봉니(일부 제외)

순번	명칭	수량	소속군	비고
1	우북○○(右北○○)	1	右北平郡?	도면 5의 1
2	광성승인(廣城丞印)	4	右北平郡	도면 5의 2
3	정릉승인(廷陵丞印)	2	右北平郡	도면 5의 3
4	자승지인(贅丞之印)	1	右北平郡	도면 5의 4
5	창성승인(昌城丞印)	1	右北平郡	도면 5의 5
6	석양승인(夕陽丞印)	1	右北平郡	도면 5의 6
7	백랑지승(白狼之丞)	1	右北平郡	도면 5의 7
8	무종○○(無終○○)	1	右北平郡	도면 5의 8
9	당성승인(當城丞印)	1	代郡	
10	천주승인(泉州丞印)	1	漁陽郡	



<도면 6> 능원 안장자고성의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

3.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표자는 일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요하 이서지역에는 진번군과 임둔군, 낙랑군과 현도군이 설치되었으며, 난하 하류(당산-진황도시)에는 요서군이, 영정하 중하류(북경-천진)에는 요동군이 각각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서한 전기의 ‘패수’는 난하(또는 그 서쪽의 강)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요서지역(칠로도산~의무려산)에는 우북평군과 요서군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능원, 객좌, 조양, 금서 등지에서 출토되는 명문 자료들과 문화 정체성과 중심성을 나타내는 분묘와 주거 구조, 취사용기, 건축 재료 등을 살펴보면 전국말~서한초 단계 이후에는 중원문화 일색으로 나타난다. 요서지역이 중원문화 일색으로 변모하기 전에 주된 물질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였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아마 이와 같은 문화의 여러 하위 유형 중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전국 후기 이전에는 요서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가와자유형으로 대표되는 요동지역의 물질문화도 그 중심성과 한국식 세형동검문화로의 계승성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함께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패수의 위치 역시 요하 이동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서지역에서 전국 후기 이후의 물질문화까지 고대조선의 중심지나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준왕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 정체성은 철저하게 중원문화에 중심을 둔 것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준왕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 정체성을 중원문화에 두는 것은 중국학계나 일본학계의 보수적인 주장과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자칫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지역 간의 물질문화 교류와 여러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착문화와 외래문화가 혼합된다던지 두 문화요소가 복합, 변형되어 새로운 물질문화가 등장하는 양상들은 비단 선사시대 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초기에도 종종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 정체성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었다. 이를테면 요서지역의 전국시대 토착 집단은 청동단검문화를 바탕으로 중원식 동과의 요소를 일부 차용하여 신종 청동무기인 요령식 동과를 창안한다. 요령식 동과는 요동지역으로 전해지며, 이후 다시 한반도

로 전해져서 한국식 동과로 변천된다. 동경 역시 원래 중국 북방지대에서 기원하였으나 요령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면 다뉴세문경과 같은 청동기 제작기술의 결정체로 발전한다. 외래문화의 주체적인 변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고조선의 문화 정체성은 청동단검문화에 중심성을 두고 외래문화가 일정하게 혼합, 변형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토착문화에 토대를 두면서도 외래문화와의 교류 또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귀다순·장성더(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동북아역사재단.
- 이청규,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 사회」, 『北方史論叢』6, 高句麗研究財團.
- 정인성, 2015, 「낙랑토성의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쟁점』, 2015년 상고사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 정인성, 2016, 「일제강점기 土城里土城(樂浪土城)의 발굴과 출토유물 재검토 -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왕검성과 한군현』, 2016년 제1회 상고사 토론회, 동북아역사재단.
-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靑銅器文化和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5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顧鐵山·郭景斌, 1996,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 『文物』1996-3.
- 高青山, 1987, 「朝陽袁臺子漢代遺址發掘報告」, 『遼海文物學刊』1987-1.
- 國家文物局 主編, 2001,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的勘探與試掘」, 『2000 中國重要考古發現』.
- 錦州市博物館, 1983, 「遼寧錦西縣台集屯徐家溝戰國墓」, 『考古』1983-11.
- 吉林大學校考古學系·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 「遼寧錦西市邵集屯小荒地秦漢古城址試掘簡報」, 『考古學集刊』11.
-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与研究」, 『北方文物』2011-4.
- 北京市文物研究所 編, 2007, 『軍都山墓地：玉皇廟』, 文物出版社.
- 北京市文物研究所 編, 2009, 『軍都山墓地：葫蘆溝與西梁堖』, 文物出版社.
-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市賈各庄發掘報告」, 『考古學報』1953-6.
- 王成生, 1997, 「漢且慮縣及相關陶銘考」, 『遼海文物學刊』1997-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簡報」, 『考古學報』1996-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 「遼寧

建昌縣東大杖子墓地M40的發掘」,『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朝陽袁臺子 - 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1·2002年發掘簡報」,『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國, 2015,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0年發掘簡報」,『文物』2015-11.

鄭紹宗, 1956, 「熱河興隆發現的戰國生產工具鑄范」,『考古通訊』1956-1; 1994,『北方考古學研究』(三), 中州古蹟出版社.

程長新, 1985, 「北京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考古』1985-8.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燕下都』, 文物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 2005,『中山國靈壽城』, 文物出版社.

* 인용자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하나 일부 자료는 생략하였음을 밝혀 둔다.

〈발표 2〉

고조선 패수의 위치

박준형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고조선 패수의 위치

박준형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1. 문제제기

고조선사 연구는 단군신화, 기자조선의 실체, 주민집단, 중심지와 강역, 사회성격, 고고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중 중심지와 강역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¹⁾ 중심지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강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조선사 연구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는 보완될 수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심지의 위치와 강역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고조선의 물질문화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 다소 소모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고조선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조선 중심지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요령설·평양설·이동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제기되었으며 근대 역사학 도입 이후에도 각각의 설을 계승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근래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의 범위와 중심, 문

1)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2 ; 노태돈, 1990,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23 ; 오강원, 1996~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1·2)」, 『백산학보』48·49 ;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8.

화 주제, 문화 변동 등을 고조선 영역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본 발표에서는 고조선의 강역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溟水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고조선과 漢의 경계가 溟水였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패수의 위치를 확인하면 고조선의 西界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고조선의 대략적인 영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패수의 위치와 관련해서 淸川江說·鴨綠江說·渾河說·大凌河說·灤河說 등 이미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³⁾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기』 조선열전, 『한서』 지리지, 『위략』, 『수경주』 등 관련 사료에 보이는 패수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염철론』 주진편, 『설문해자』, 『한서』 지리지 요동군 변한현조에서는 溟水가 아닌 沛水로 나온다. 이 沛水와 溟水의 관계 설정에 따라 패수의 위치 비정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패수를 어느 강에 비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이 진한교체기 주변국의 정세 변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 시기에 秦代 군현으로 편제되었던 南越·東越·西南夷 등이 모두 漢으로부터 독립했고, 河西지역에서 쫓겨났던 흉노가 다시 이 지역을 차지했다. 즉, 한초에는 진대에 설치되었던 변군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고조선이 요동을 공격하여 한과의 경계를 패수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또한 패수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고조선과 흉노와의 관계이다.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흉노는 기원전 209년에 동호를 격파하고 영역을 확장하여 동쪽으로 예맥·조선과 접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시기에 고조선은 한과 패수로 경계를 삼았다. 따라서 고조선은 패수 인근에서 한·흉노와 접하게 된다. 패수를 어느 강으로 비정할 것인지는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강이 바로 흉노와의 경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푸른역사)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서경문화사).

3) 오강원, 1998, 「古朝鮮의 溟水와 沛水」, 『강원사학』13·14.

2. 진한교체기 국제관계의 변화

1) 秦의 고조선 공격

기원전 221년 秦의 전국 통일은 주변 이민족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진은 東越지역을 閩中郡으로, 西南夷지역을 巴·黔中郡으로 편제하였다. 북방에서는 몽염을 시켜 흉노가 거주하던 河南지역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九原郡을 비롯한 34개의 현을 설치하였다.

진의 전국 통일의 여파는 고조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염철론』 주진편에는 “秦이 이미 천하통일한 후에 동으로 沛水를 넘어 朝鮮을 滅亡시켰다”⁴⁾고 되어 있으며, 『사기』 율서에는 “孝文帝가 즉위하자 장군 陳武 등이 議論을 올려 말하기를, “南越과 朝鮮은 秦나라 시기에 內屬하여 臣子로 삼았습니다”⁵⁾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위략』에서는 “秦이 天下를 통일한 뒤에 蒙恬을 시켜서 長城을 쌓게 하였는데 遼東에 이르렀다. 이때 朝鮮王 否가 왕이 되었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으나 朝會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⁶⁾고 되어 있다.

고조선과 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이었던지는 차지하고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진이 沛水를 건너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점이다.⁷⁾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위만이 溟水를 건너 秦故空地上下鄣에 머물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대에 溟水 이동지역이 진의 요동군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이것은 진의 공격 이전에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진한교체기 이민족의 독립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다섯 번째 순행에 나섰다가 병을 얻어 도중에 죽었다. 이후 二世 황제가 즉위했지만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등 失政으로 인해 진은 급속도로

4) 『鹽鐵論』 卷8 誅秦,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並滅朝鮮”.

5) 『史記』 권25, 律書, “歷至孝文即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6)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인용 『魏略』,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7) 본고에서는 溟水와 沛水를 같은 강으로 본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몰락하게 되었다. 이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방과 항우도 거병하였다 (B.C. 209). 결국 진은 진시황이 죽은 지 3년만인 기원전 207년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후 기원전 206년 항우가 西楚의 霸王이 되고 18왕을 분봉했다. 이때 유방은 漢王에 분봉되었다. 이후 유방은 楚漢의 항쟁에서 승리하여 기원전 202년에 황제로 즉위하였다.

한은 정국 혼란으로 인해 변군지역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진대에 강압적으로 군현으로 편입되었던 邊郡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남월지역에 설치된 桂林·南海·象郡은 진의 멸망과 함께 군현에서 이탈하였다. 趙佗는 진의 長吏들을 죽이고 계림군과 상군을 합병하고 스스로 남월의 武王으로 즉위하였다.⁸⁾ 그리고 6국의 반란 세력들이 西進하였을 때 諸越이 모두 거병하여 誅秦에 가담하였다.⁹⁾ 그리고 초한의 항쟁에 참여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기원전 196년 한고조는 陸賈를 보내 위타를 남월왕으로 인정하였다.

동월지역에서도 진의 閩中郡으로 편입되기 이전 민월왕이었던 武諸와 越의 東海王 搖가 越人들을 이끌고 후에 장사왕이 된 翻陽승 吳芮에게 귀순하였다. 이후 오예와 함께 제후들을 도와 진을 멸망시켰다. 항우가 자기들을 왕으로 삼지 않자 무제와 요는 한이 항우를 치는데 도왔다. 이후 한고조 5년(B.C. 202)에 무제를 추대하여 민월왕으로 삼았다. 이후 192년에는 고조 때 월의 공을 참작하여 그를 동해왕으로 삼았다.¹⁰⁾

서남이지역도 진의 군현에서 이탈하였다. 전국 후기에 楚가 巴·黔中 지역에 진출하여 검중군을 설치하였다. 진이 초의 파군·검중군 지역을 빼앗자 초의 莊驪가 滇지역에서 滇王이 되었다. 진대에는 이 지역을 공격하여 군을 개척하였다. 진이 멸망되고 한이 일어 서자 이 나라를 포기하고 촉의 옛 徼를 다시 열었다.¹¹⁾ 즉, 한은 토착 전통이 강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직접 통치를 포기한 것이다.

8) 『史記』 卷113 南越列傳 第53.

9) 『漢書』 卷1下 高帝紀 第1下.

10) 『史記』 卷114 東越列傳 第54.

11)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 第56.

3) 흉노의 동호 격파

진한교체기 북방지역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건은 흉노의 동호 격파이다. 동호는 연에게 패한 이후에도 장성 이북 지역에서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흉노의 목들이 아버를 죽이고 선우에 올랐을 당시만 해도 동호의 세력은 강했다. 동호는 목들을 업신여기고 흉노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목들이 동호를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이후 월지를 쳐서 패주시키고 남쪽으로 누번왕, 白羊河南王 등의 영지를 병합하였다. 또 燕·代를 공격하여 진나라 몽염에게 빼앗겼던 흉노땅을 되찾았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진한교체기 영토를 확장한 흉노가 동쪽으로 예맥·고조선과 접하게 되었다(“東接穢貊朝鮮”)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조선은 한과 溟水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패수를 중심으로 그 서쪽에는 漢과 북쪽에는 흉노와 접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은 패수를 경계로 위로는 흉노를, 동쪽으로는 고조선·예맥을 동시에 상대해야만 했다. 한에서 고조선을 흉노의 左臂¹²⁾로 인식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패수의 위치에 대한 검토

1) 한초 고조선의 요동 공격과 溟水

한초에 진대에 편입되었던 이민족의 변군들이 독립하면서 한의 영역은 진대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 고조선과의 경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A) 조선왕 滿은 옛 燕人이다. 연의 전성기에 비로소 眞番朝鮮을 경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鞞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멸한 뒤에는 (그곳을)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 漢이 흉

12) 『漢書』 卷73 韋賢傳 第43, “孝武皇帝愍中國罷勞無安寧之時…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기하나 그곳[遼東外徼]이 멀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遼東故塞를 수리하고 淇水에 이르러 경계로 하여 燕에 소속시켰다. 燕王 盧綰이 (漢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衛)滿이 망명하여 무리 천여 인을 모아 상투에 蠻夷服을 하고 동쪽으로 塞를 빠져나와 淇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鄣[秦故空地上下鄣]에 머물렀다.¹³⁾

한은 遼東外徼가 멀어서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遼東故塞를 수리하고 淇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고 燕의 관리하에 두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초의 고조선과 한의 국경이 패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만은 塞[遼東故塞]를 빠져나와 淇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鄣[秦故空地上下鄣]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다. 위만의 경로를 간단히 “遼東故塞 → 淇水 → 秦故空地上下鄣”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만이 머물렀던 곳인 秦故空地上下鄣은 한과 패수로 경계로 삼기 이전에 진의 영역, 즉 진의 요동군에 속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초에 고조선이 패수 이동 지역인 秦의 옛 空地[秦故空地]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염철론』 비호편에

B) 대부가 말했다. “지난날에 四夷가 모두 강성하여 다 같이 중국을 노략질한 것이 있습니다. ① 朝鮮은 변경을 넘어 燕의 동쪽 땅을 겁혔고[劫], ② 동월은 東海를 건너 浙江의 남쪽 땅을 침략하였으며, ③ 南越은 중국 안으로 침입하여 服嶺을 어지럽혔고, ④ 저(氏)·북(熒)·염방(冉駝)·수당(嵩唐)·곤명(昆明) 등의 무리는 隴西와 巴蜀 등을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지금 동방·서방·남방 등 세 쪽의 변방은 이미 평정되었으나 오직 북변만이 평정되지 못하였습니다.¹⁴⁾

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월·동월·서남이 세력들이 모두 한의 군현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면서 한의 남쪽 지역을 공격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여기에서 고조선이 한초에 연땅을 劫했다고 했다. ‘劫’字의 의미를 좀더 살펴보자. 『大漢和辭典』(卷2)에 의하면 劫자는 ‘威脅하다’는 뜻과 함께 ‘빼앗다’[奪: 強取]는 뜻이 있

13) 『史記』卷115 朝鮮列傳 第55,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淇水爲界 屬燕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14) 『鹽鐵論』卷7, 備胡 第38, “大夫曰 往者 四夷俱強 並爲寇虐 朝鮮踰徼 劫燕之東地 東越越東海 略浙江之南 南越內侵 滑服令 氏·熒·冉駝·嵩唐·昆明之屬 擾隴西·巴·蜀 今三垂已平 唯北邊未定”

다. 劫자가 위협하다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 대상이 사람이나 국가단체이어야 한다. 위 사료(B)에서는 그 대상이 땅[‘연의 동쪽 땅’]이기 때문에 겁자는 ‘위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빼앗다’는 強取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한초에 고조선이 연의 동쪽 땅을 단순히 위협한 것이 아니라 연의 동쪽 땅을 빼앗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A)에서는 멀고 지키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요동의 고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조선에게 연의 동쪽 땅을 빼앗긴 것을 한의 입장에서 修辭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진한고체기에 고조선이 패수 이동지역[‘진의 옛空地’]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¹⁵⁾

2) 諸說 검토 : 대릉하설, 청천강설, 압록강설

그렇다면 溟水는 어느 강일까? 패수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에 대한 논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⁶⁾ 이제까지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灤河淸大凌河渾河鴨綠江淸川江說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중 대체로 청천강설은 소위 고조선 중심 평양설과, 대릉하설·난하설은 요령설, 그리고 압록강설·혼하설은 대체로 이동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릉하설¹⁷⁾을 살펴보자. 이 견해에서는 漢代 이전의 遼水는 오늘날의 灤河이고 한대 이후에야 오늘날의 遼河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연의 침공으로 고조선의 西邊이 오늘날 요하선까지 밀렸다가 한초에 溟水인 대릉하유역까지 회복했다고 본다. 또한 이때 연·한초의 요동군은 山海關 서쪽에 있었던 것이 고조선 멸망 이후 오늘날 요동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고학적으로 연진장성의 동단이 요하선까지 나타나고 요동군의 치소가 襄平[遼陽]이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패수를 요하 이서지역의 대릉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런 점에서 패수를 대릉하 서쪽에 있는 난하¹⁸⁾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¹⁹⁾

15) 『위략』에서는 노관이 연왕에 봉해진 뒤에 고조선과 한의 경계를 패수로 삼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이 노관을 연왕에 봉한 것이 기원전 202년이므로 고조선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기원전 202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16) 오강원, 1998, 앞의 논문.

17) 립건상, 1963,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고찰」,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 289~295쪽 ;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72~83쪽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2』, 41~55쪽.

18) 윤내현, 1994, 『고조선 연구』, 41~66쪽.

19)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대군 연구』, 24~29쪽 ; 이형구, 1995, 「리지린과 윤내현의

다음으로 청천강설을 살펴보자. 이 견해에서는 문헌상의 근거로 연과 고조선의 경계였던 만변한을 문현과 변한현으로 보고 변한현을 沛水=博川江유역에서 찾는다. 대동강유역의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한과 고조선의 경계인 패수는 그 사이에 있는 청천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⁰⁾ 또한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에 패수현이 있고 그 강의 흐름이 청천강과 일치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본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청천강 이북지역에는 전국계 철기문화인 세죽리-연화보문화가 나타나는 반면에, 청천강 이남지역에서는 세형동검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천강이 문화적 계선이 된다고 본다.²¹⁾

이러한 청천강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한서』 지리지 요동군조에는 문현과 변한현이 나란히 나온다. 문현 주민이 산동반도로 건너가 신문현을 세웠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문현과 변한현, 즉 만변한을 요동반도 일대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²²⁾ 또한 沛水로 본 박천강[대령강]은 南流 혹은 東南流하는 강이다. 西南流한다던 沛水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²³⁾ 따라서 변한현을 박천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와 달리 문현을 요동반도 개평 일대로, 변한현을 청천강 일대로 보는 절충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²⁵⁾ 그러나 천산산맥 이서지역인 요하 하류의 개평과 천산산맥을 넘고 압록강을 지나 다시 청천강에 이르는 지역을 국경선으로 삼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연·진·한과 고조선의 경계를 청천강으로 볼 경우 고조선이 진에게 빼앗긴 秦故空地를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가 너무 좁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한초에 진대의 국경이 멀고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수[청천강]로 국경을 삼았다고 했는데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를 멀어서 국경선을 후퇴할 정도의 거리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본다.²⁶⁾ 물론 이에 대해 『사기』 조선열전(A)에서 고조선과 경계가 되었던 지역의 鄣塞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거나 패수 위치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고조선 연구’ 비교], 『역사학보』146.

20)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70~71쪽.

21) 송호정, 2003, 앞의 책, 307~310, 345~347쪽.

22)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50~51쪽.

23)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50쪽.

24) 이 견해에서는 요동~청천강 이북지역에서 보이는 명도전을 비롯한 세죽리-연화보문화를 요동군 내지 그 영향이 강하게 미친 燕系문화로 보고, 청천강 이남의 한국식동검문화와 구분지어 이해한다(송호정, 2010, 앞의 논문, 54~55쪽). 따라서 연과 고조선의 경계인 변한현을 청천강유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25) 송호정, 2010, 앞의 논문, 46~47쪽.

26)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26~27쪽 ; 오강원, 1998, 앞의 논문, 74~75쪽.

찾기가 힘들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한이 직접 관할하는 장새를 요동지역으로 축소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²⁷⁾

그러나 『염철론』 비호편(B)에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조선이 한초에 연땅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그곳[요동외요]이 멀고 지키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요동의 고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의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을 修辭的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²⁸⁾

청천강설에서는 명도전이 청천강 이북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현상을 통해 연과 고조선의 경계로 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명도전은 청천강 이남의 평양지역까지 출토되고 있다. 최근 연구성과에 의하면 천산산맥 이동 지역에서는 초기세형동검문화와 명도전 출토지가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명도전을 통해 연의 진출을 설명하거나 그 사용주체를 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²⁹⁾

청천강설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압록강설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주목을 받았다. 이 견해에서도 청천강을 연·진과 고조선의 경계로 이해한다. 청천강을 중심으로 이북지역에서 명도전을 포함한 세죽리-연화보문화가 분포한 점과 이남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분포한 점을 문화적 계선으로 이해한다.³⁰⁾ 이러한 점에서는 청천강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초에 고조선과의 경계가 청천강에서 후퇴한 점이 확실하고 한대 요동군이 襄平[遼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천강과 양평 사이에 자연적인 경계가 될 수 있는 강은 압록강뿐이라는 것이다.³¹⁾ 이처럼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를 진고공지로 봄으로써 청천강설의 문제점을 일부 극복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³²⁾

그러나 『한서』 지리지 낙랑군 패수현조에 이미 청천강으로 비정되는 溟水가 있다. 그리고 현도군 서개마현조에는 “馬訾水是 서북으로 흘러 鹽難水와 합류하고 또 서남으로 흘러서 西安平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여 마자수는 압록강이고 염난수는 渾江

27) 송호정, 1999, 앞의 논문, 197쪽.

28) 서영수, 2008, 앞의 논문, 45~46쪽.

29) 명도전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남도 덕천군 청송노동지구, 영원군 온양리, 양덕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대동강변, 영변군 신현면 도추리, 평양, 남가 등지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하는 것들이 있다(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108~115쪽)

30)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24~31쪽.

31) 오강원, 1998, 앞의 논문, 74~76쪽.

32) 김한규, 2004, 『요동사』, 124~129쪽.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압록강을 패수로 보면 같은 시기에 패수가 2곳에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한초에 흉노는 동호를 격파하여 동쪽으로 예맥·고조선과 접하게 되었다[東接穢貊朝鮮]고 한다. 만약 한초에 고조선과 한의 경계가 압록강이었다고 한다면 고조선·예맥과 흉노의 경계도 압록강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한의 요동군이 있는 이상, 흉노가 압록강까지 영역을 확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위만은 진고공지상하장에 거주하면서 준왕으로부터 고조선의 西邊을 방어하는 책임을 맡았다. 만약 압록강이 패수라고 한다면 위만은 고조선의 서변이 아니라 北邊을 방어하는 셈이 되어 사료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패수는 서북한지역이 아닌 요동지역에 있는 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혼하설

이런 점에서 渾河說에 주목해 보자. 이 설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견해로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前漢紀』의 패수 관련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³³⁾ 『전한기』는 후한 헌제가 『한서』의 문장이 번잡하고 읽기가 난해하여 198년 荀悅(149~209)에게 명하여 기전체의 『한서』를 1/4분량의 편년체인 『(前)漢紀』로 편찬한 것이다.³⁴⁾ 주지 하듯이 『한서』 조선열전은 『사기』 조선열전을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따라서 『전한기』에는 『사기』와 『한서』 저술 당시의 역사지리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前漢紀』 孝武皇帝紀에는

C) 漢이 흥기하니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遼水를 塞로 삼았다. 燕人(衛)滿이 망명하여 무리 천여 인을 모아 遼(東)에 있었는데 秦의 故地에 머물렀다.³⁵⁾

라고 하여 고조선과 한의 경계를 시사하는 遼水가 언급되어 있다. 『전한기』에서는 “遼水

33) 서영수, 2008, 앞의 논문, 44~50쪽; 김남중, 2001,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 『한국고대사연구』22, 15~17쪽; 박준형, 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108, 12~14쪽.

34) 薛明揚, 1994 『中國學術名著提要(歷史卷)』, 復旦大學出版社, 120~122쪽.

35) 『前漢紀』 孝武皇帝紀5 卷第14, “(元封)二年冬十月…漢興以爲其遠 難守 故遼水爲塞. 盧綰之反也 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在遼, 居秦故地”

를 塞로 삼았다”고 했다. 요수에 대해서 『水經注』에는 大遼水와 小遼水가 있는데 대요수는 “大遼水出塞外衛白平山 東南入塞東 過遼東襄平縣西”³⁶⁾이라고 하고 소요수는 “水出北塞外 西南流逕遼陽縣 注遼水”³⁷⁾라고 되어 있다. 대요수는 오늘날 遼河이며 소요수는 渾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番汗縣조에는 “沛水는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沛水出塞外 西南入海]”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沛水는 오늘날 요하[대요수]가 아닌 혼하[소요수]의 흐름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한기』의 요수는 오늘날 혼하임을 알 수 있다.

『전한기』(C)의 밑줄 친 부분(“漢이 흥기하니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遼水를 塞로 삼았다”)은 『사기』 조선열전(A)에서 밑줄 친 부분(“漢이 흥기하니 그곳[遼東外徼]이 멀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遼東故塞를 수리하고 涇水에 이르러 경계로 하여 燕에 소속시켰다”)을 改寫한 것이다.

발표자는 이전에 『전한기』에서 “遼水를 塞로 삼았다[遼水爲塞]”는 기록이 『사기』의 ‘涇水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至涇水爲界]’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패수를 (소)요수[혼하]로 보았다.³⁸⁾ 그러나 최근 『전한기』의 ‘遼水爲塞’는 ‘復修遼東故塞’에 대응하는 것으로 ‘至涇水爲界’와는 구별된다고 보면서 涇水를 遼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³⁹⁾ 그러나 『전한기』의 ‘遼水爲塞’를 『사기』의 ‘復修遼東故塞’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소)요수, 즉 혼하유역의 漢代 ‘列燧’유지가 “遼水를 塞로 삼았다”는 변경 수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전한기』의 밑줄 친 부분 바로 뒤에는 위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사기』(A)에서도 밑줄 친 부분의 다음에 바로 연왕 노관과 위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사기』의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를 『전한기』에서 “遼水爲塞”로 改寫, 즉 “요동의 옛 塞를 수리하여 패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고 한 것을 “遼水를 塞로 삼았다”고 압축한 것이다.

塞는 邊境에 설치하는 인위적인 군사시설이므로 한의 직접지배지역인 요동군의 관할 범위는 遼東故塞[邊塞]가 설치된 지점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하천을 인위적 군사시설인 塞로 삼았다고 하는 『전한기』의 기록은 이해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36) 『水經注』 卷14 大遼水.

37) 『水經注』 卷14 小遼水.

38) 박준형, 2014, 「위만조선의 영역과 인구」 『백산학보』99, 113~120쪽.

39) 송진,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76, 88쪽.

그렇다면 순열은 “復修遼東故塞 至泚水爲界”를 “遼水爲塞”로 적었을까? 『사기』의 해당 부분은 한의 입장에서 고조선과의 경계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어는 遼東故塞, 泚水, (境)界 셋이다. 순열은 이것을 『사기』 조선열전에 언급되지 않은 水名인 遼水와 塞의 관계로 바꾸었다. 그것은 그렇게 바꾸어도 전체적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일 것이다. 순열은 변경을 수비하는 塞와 실제 양국의 경계였던 자연계선인 泚水를 구분해서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塞의 역할을 하면서도 고조선과 경계로 삼았던 泚水를 후한 당시의 水名인 遼水로 바꾸어 “遼水を塞로 삼았다[遼水爲塞]”고 고친 것이다.

순열은 “遼水爲塞”라는 표현으로 “復修遼東故塞 至泚水爲界”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遼水爲塞”는 “復修遼東故塞 至泚水爲界” 중에서 “復修遼東故塞”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를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한기』의 遼水[渾河]는 『사기』의 泚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만은 한의 요동군의 관할구역이었던 요동고새를 빠져나와 고조선과의 경계였던 泚水[혼하요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에 있던 상하장[秦故空地上下鄣]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전한기』에서는 ‘秦故空地上下鄣’을 ‘秦故地’라고 했다. 이 지역은 진대에 요동외요에 속했던 곳이다. 요동군의 외요는 요동군의 변경 밖에 설치된 요로서 진의 변새와 고조선의 국경 사이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徼는 亭鄣과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관할 범위를 순찰순시하면서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조선이 진 요동군의 외요에 속했다는 것은 진의 치안 관리 범위에 속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이 지역은 진의 통치기간 동안 중원계 문물이 들어왔고, 한초에도 여전히 연·제·조민이 유입되었던 곳이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이 지역은 한의 요동군으로 편제된다.⁴¹⁾

40) 송진, 2014 앞의 논문, 81쪽.

41) 진대에 요동외요에 속했던 지역은 대체로 압록강유역까지 이른다고 추정된다. 이 지역은 고조선 멸망 이후 한의 四郡으로 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동군으로 편제되었다. 그것은 진대에 요동군의 관할에 있었고 한의 입장에서는 한초에 고조선으로부터 빼앗긴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진대의 경험에 비추어 요동군으로 편제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 멸망 이후인 기원 2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한서』 지리지 요동군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맞은편인 丹東市에 있었으므로 泚水는 압록강 이동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溲水와 沛水

한편 『염철론』 주진편에서는 秦이 “동쪽으로 沛水를 넘어 朝鮮을 멸망시켰다”고 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番汗縣조에는 “沛水는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沛水出塞外 西南入海]”고 되어 있다. 변한현은 文縣과 이어서 나오는 데 문현이 대체로 蓋平 서쪽으로 비정⁴²⁾되는 만큼 변한현도 개평 부근인 혼하 하류 영구와 개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진이 동쪽으로 넘은 沛水와 요동군 변한현을 지났다는 沛水는 『사기』 조선열전의 溲水가 같은 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와 달리 『한서』 지리지 낙랑군 溲水縣條의 溲水[“水西至增地入海”]는 청천강을 가리킨다. 이처럼 溲水는 문헌 성립 연대에 따라 표기가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溲水의 대상이 바뀌었던 이유는 바로 고조선이 연의 공격으로 요동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고조선계 지명인 溲水도 같이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平壤이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한 말부터는 요동의 溲水[혼하]와 대동강유역의 고조선 중심지에 가까운 溲水[청천강]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沛水로 고쳐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5) 고조선과 흉노의 接境

고조선의 서계와 관련해서 흉노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흉노는 기원전 209년 頭曼單于의 아들인 冒頓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선우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그는 東胡月氏樓煩 등을 격파하였으며 燕代를 공격하여 몽염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모두 되찾았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모든 左方의 王과 將들은 동쪽에 살며 상곡군에서부터 동쪽을 맡아 예맥, 조선과 접해 있었다(“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고 하여 흉노의 영역이 동쪽으로 예맥, 조선과 접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고조선과 흉노 사이에 있던 동호가 격파되면서 서로 접하게 된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조선

42)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49~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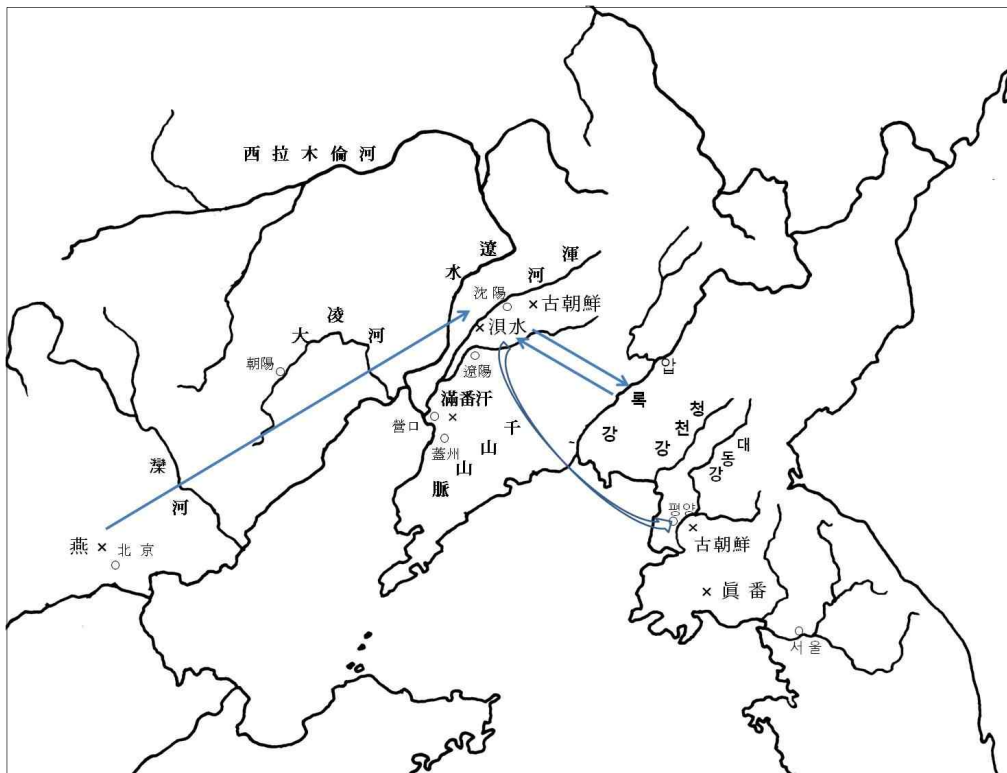
43) 박준형, 2012 앞의 논문, 19~20쪽.

44) 서영수, 2008, 『『사기』 고조선 사료의 구성 분석과 신해석』, 『단군학연구』18, 80쪽.

45)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9, 99~105쪽.

예맥과 흉노가 접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고조선과 한의 경계가 패수였으므로 패수를 위쪽으로 흉노와의 접했던 곳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혼하~압록강 유역에서 흉노와 관련된 유적은 발견된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고조선과 한의 경계는 요동고새와 가장 가까운 요수[혼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하 이북지역으로 고조선이 흉노와 접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통일한 후 기원전 202년에 한은 盧縮을 연왕으로 삼았다. 노관은 고조선이 이미 빼앗은 지역을 묵인하면서⁴⁶⁾ 고조선과의 경계를 자연계선인 패수=혼하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당시 한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정국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북방의 흉노와 대결상태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조선이 흉노와 접경하게 됨으로써 한에서는 동북지역 변경에서 고조선과 흉노와 동시에 경계해야만 했다. 한에서 고조선을 흉노의 左臂⁴⁷⁾로 인식했던 것을 볼 때, 한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고조선이 흉노와 연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 변화도

46) 김남중, 2002, 「燕秦의 요동통치의 한계와 고조선의 요동 회복」 『백산학보』62, 69쪽.

47) 『漢書』卷73 韋賢傳 第43, “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4. 餘論 : 고조선과 秦의 경계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조선과 한의 경계는 패수=혼하였다. 패수 이동지역은 秦故空地로 진대에 요동군에 편입되었던 지역이다. 그렇다면 고조선과 진의 경계는 혼하 이동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고조선은 평양지역에 있었다. 따라서 고조선과 진의 경계로 삼을 만한 자연계선은 청천강과 압록강으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청천강설을 살펴보자.⁴⁸⁾ 이 설에서는 세형동검문화와 세죽리-연화보문화의 경계가 청천강이고 명도전이 청천강 이북에서만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연·진의 요동군이 청천강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 중에서는 연·진·한 요동군의 경계를 모두 패수=청천강로 일치시켜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고조선의 중심지인 평양과 청천강 사이에 위만이 정착했던 진고공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초 국경선인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아 진고공지를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로 이해하기도 한다.⁴⁹⁾

다음으로 압록강설⁵⁰⁾을 살펴보자. 이 설에서는 연과의 경계였던 만변한을 천산산맥으로 보고 연의 공격으로 고조선의 중심이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본다. 그리고 한초 고조선이 영역을 회복하여 패수=혼하로 경계를 삼았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견해는 본고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부합된다. 당시 진이 沛水[涿水=渾河]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했다는 『염철론』 주진편의 기록을 볼 때 천산산맥 이동에서 청천강유역까지 고조선과 진의 요동군과 경계로 삼을 만한 자연계선으로 압록강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⁵¹⁾

그러나 이 압록강설도 진과의 경계를 압록강으로 보는 문헌상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 논리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의 화폐인 반량전의 출토 사례를 살펴보자. 요하 이동지역에서 반량전 출토지로는 新金縣 高麗寨 유적, 牧羊城 유적, 桓仁縣 大甸子 주거지, 長白縣 干溝子 적석묘, 集安縣 태왕릉 부근, 압록강유역의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매납유적 등을 들 수 있다.⁵²⁾ 이들 출토지는 모

48)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25~31쪽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아르케), 72~74쪽 ; 송호정, 2003, 앞의 책, 335~343쪽.

49) 노태돈, 1990, 앞의 논문, 28~29쪽.

50) 서영수, 2008, 앞의 논문, 40~44쪽.

51)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29, 111~114쪽.

52) 박선미, 2009, 앞의 책, 98~115, 226~231쪽.

두 요하 이동지역에서 압록강유역에 분포한다. 물론 반량전이 출토되었다고 해서 모두 진대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없다. 한대까지도 반량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출토지역이 진대 화폐의 유통지역이었고 그것이 진과 관련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량전이 주로 압록강 이서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요동군의 통치 범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위만이 머물렀던 진고공지=진고지가 요동에 있었다고 하는 『전한기』의 기록을 고려할 때, 고조선과 진의 경계는 압록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토론 2〉

요녕성의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가지 이유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요녕성의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1. 머리에

조선은 한국사의 출발점이다.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한국사의 발상지와 요람이 결정되고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였느냐에 의해서 한국사의 역사무대가 달라진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중차대하다.

패수는 한왕조의 연나라사람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올 때 건너온 강의 이름이다. 한과 조선의 경계에 위치했던 이 강의 위치가 확인된다면 한국의 역사무대가 대륙인지 한반도인지 밝혀지게 된다. 그러므로 패수는 단순한 하나의 강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의 요람과 역사무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계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고조선과 한의 경계, 패수의 위치를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논의의 주제로 올려 강단과 민족사학의 견해를 아울러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긴다.

2. 고조선의 패수를 보는 강단사학의 시각

현재 우리 학계에서 패수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패수를 한반도의 청천강, 압록강 등지로 보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은 이병도, 노태돈, 송호정 등 강단사학으로 대표된다. 다른 하나는 대륙의 대능하, 난하, 현우락 등지로 보는 것으로 이 관점은 신채호, 리지린, 윤내현 등 민족사학으로 대표된다. (노태돈, 「왕험성과 패수」,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참조.)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요녕성에 있는 혼하를 패수로 보는 관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오늘 발표자의 관점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혼하 패수설은 강단사학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논리가 한사군 한반도설, 대동강 낙랑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 논평은 주로 강단사학의 패수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민족사학의 관점에 대한 논의는 평자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먼저 이병도의 청천강 패수설과 노태돈의 압록강 패수설을 간단히 검토하고 이어서 본 논평의 주제인 혼하 패수설에 대해 본격적인 논에 들어가기로 한다.

1) 이병도의 청천강 패수설

이병도는 「패수고」에서 청천강이 패수라고 주장했다. 이병도가 청천강이 패수라고 주장한 것은 한사군이 한반도 일대에 있었고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믿는데 기인한다. 한의 군현인 요동군이 압록강 서쪽에, 고조선의 중심지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므로 압록강과 대동강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청천강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올 때 건너온 패수라고 이병도는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가 토성리 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주장한 대동강 낙랑설, 한사군 한반도설이 이병도의 청천강 패수설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병도의 청천강 패수설은 대동강 낙랑설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동강 낙랑설이 무너지면 청천강 패수설은 저절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한사군의 낙랑군 조선현이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사고전서』의 『무경총요』, 『태평환우기』 등과 같은 여러 권위 있는 사료를 통해서 실증되었다. 강단사학을 제외한 민족, 재야사학계에서는 대동강 낙랑설은 이미 용도 폐기되었고 요서 낙랑설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낙랑』 (심백강, 바른역사, 2014)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2) 노태돈의 압록강 패수설

노태돈은 압록강 패수설을 주장한다. 노태돈의 관점은 역시 한사군 한반도설, 대동강 낙랑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병도와 동일하다. 다만 청천강을 위만이 건너온 패수로 볼 때, 위만이 패수를 건너와서 머물렀던 곳이 대동강과 청천강의 중간지대가 되게 된다. 그럴 경우 그 지역은 진말, 한초에 난리를 피해 수 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유이민 집단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노태돈은 압록강을 위만이 건너온 패수로 보고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를 위만이 와서 거주했던 공간으로 간주한 것이다. (노태돈, 「왕험성과 패수」,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참조) 노태돈의 압록강 패수설은 역시 한사군 한반도설, 대동강 낙랑설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동강 낙랑설이 무너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이다.

3) 최근에 제기된 혼하 패수설

혼하 패수설은 청천강 패수설, 압록강 패수설에 이어 최근에 제기된 강단사학의 이론이다. 오늘 발표자의 주장인 이 관점은 『전한기』에 나오는 “한나라 초기에 요수를 변경으로 삼았다(漢興 遼水爲塞)”라는 기록이 『사기』의 “한나라 초기에 패수를 경계로 삼았다(漢興 至泃水爲界)”라는 내용과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전한기』의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본 다음 고조선의 패수를 소요하 즉 현재 요하 동쪽의 혼하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강단사학이 주장한 여러 이론가운데서 고조선의 강역을 서쪽으로 가장 넓게 확대한 이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고조선의

강역을 압록강 동쪽에 가두어 두었던 이병도, 노태돈과 달리 압록강 서쪽 요동지역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청천강 패수설, 압록강 패수설에 비해 진실보한 이론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발표자의 본 논문에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이 지역은 한의 요동군으로 편제된다.” “진대에 요동외요에 속했던 지역은 대체로 압록강 유역까지 이른다고 추정된다” “고조선과 진의 경계는 압록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 한시대의 요동군에 대한 이해에서 강단사학의 한사군 한반도설을 추종하고 있다.

혼하 패수설은 전체적인 논리 전개의 맥락으로 볼 때 한사군 한반도설, 대동강 낙랑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현재 요하 동쪽의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7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요녕성의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1) 고대의 요수는 현재의 요하와는 다른 강이다.

발표자는 『전한기』의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단정하고 현재의 요하와 다른 고대의 요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요수라는 명칭은 『산해경』에 최초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요수는 위고 동쪽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주입된다.(遼水出衛臯東 東南注渤海)

현재 요녕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요하는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주입된다.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의 흐르는 방향을 통해서 본다면 고대의 요수는 오늘날의 요하와는 전혀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녕성에 있는 강은 요하이외에 다른 강들도 마찬가지로 지리적 구조상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남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가는 강은 어디에 있는가. 하북성에 있다. 하북성 쪽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강들은 동남쪽으로 흐르게 된다.

『전한기』에서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이 되었다고 언급한 요수는 현재의 요하가 아니라 『산해경』에서 말한 고대의 요수를 지칭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발표자는 『전한기』에 말한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단정하고 『산해경』의 요수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패수를 소요하 즉 혼하로 간주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2) 혼하의 발원지 백두산맥 서쪽이 한나라의 북방 변경이 될 수 없다.

혼하의 발원지는 요녕성 무순시 청원현 곤마령(滾馬嶺)이다. 즉 백두산의 지맥인 곤마령 서쪽에서 혼하가 발원한다. 『수경주』에 소요수를 설명하면서 “물이 북쪽 변방 밖에서 발원한다(水出北塞外)”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의 백두산이 과연 한나라 당시의 북쪽 변방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한나라의 북새 즉 북방 변경은 산서성과 하북성, 그 북쪽 내몽고 일대를 가리킨다. 북경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경과 그 북쪽 지역이 중국의 북방에 해당한다. 백두산은 방위상으로 볼 때 중원의 동북방이지 북방이 아니다. 백두산 서쪽이 한나라 북쪽 변경이었다는 것은 문헌적, 고고학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 쪽 변방 밖에서 발원한다”는 소요수를 오늘의 백두산 지맥인 곤마령 서쪽에서 발원한 혼하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패수로 간주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패수는 북방에서 발원한 강이고 혼하는 동북방에 위치한 강이다.

상흙의 『수경』에서 “패수는 낙랑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패현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수경』에 말한 패수는 물의 흐르는 방향

으로 볼 때 현재의 요하가 아니라 『산해경』의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라는 요수와 동일한 강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패수의 발원지인 낙랑군 누방현이 어디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요사』 「지리지」에 “자몽현은 본래 한나라의 누방현이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패수의 발원지로 알려진 한나라의 누방현이 바로 요나라의 자몽현이라는 것이다. 자몽현은 어디인가.

『진서』 「모용외기」에 모용외의 선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대로 북방의 이족(夷族)이 사는 지역에 살았고 자몽의 벌판에 도읍했다(世居北夷 邑于紫蒙之野)”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북이’는 하북성 북쪽에 살던 동이족을 가리킨다. 선비족의 발상지가 바로 이 일대 지역이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자몽지야”라고 『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방의 낙랑군 누방현에서 발원한 고조선의 패수가 동북방 백두산의 지맥인 곤마령 서쪽에서 발원한 혼하와 동일한 강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북위의 역도원은 『수경』에 주석을 내면서 고구려의 패수는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수경』의 기록이 틀렸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의 패수와 고조선의 패수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온 오류라고 본다. 그런데 그 후 우리 강단 사학은 그 점을 간과하지 못하고 역도원의 주장을 따름으로서 같은 우를 범했다.

4) 고조선의 중심지로 본 패수는 혼하가 될 수 없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항에 의하면 『위서』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개국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이 처음에 평양성에 도읍했다가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 거기서 1500년 동안 다스렸고 주무왕시기에 기자가 조선으로 오자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뒤에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서 산신이 되어 수명이 1908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와 『고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조선은 평양, 아사달, 장당경 등의 도읍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2000년 동안 고조선왕조의 중심지가 된 곳은 아사달이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삼국유사』는 백악산 아사달에서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

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군이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어 1908세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단군의 후손들이 줄곧 대를 이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고조선왕조의 중심지였던 아사달은 과연 오늘날의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것일까. 현재의 요녕성 조양시(朝陽市)가 고조선시대의 아사달이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아사달은 아침의 땅이라는 우리말이고 조양은 조는 아침, 양은 양달을 뜻하는 한자로서 아침의 땅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를 빌어 뜻으로 표기한 것이 조양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양시는 지리적으로 내몽고 적봉시의 홍산, 건평, 능원 등 홍산문화, 하가점하층 문화 유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파형동검은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추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유물이다. 그런데 요서, 요동, 한반도에 걸쳐 지금까지 비파형동검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은 요서지역, 특히 조양시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조선왕조의 중심지가 아사달이고 아사달은 현재의 요녕성 조양시 일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방증이 된다고 하겠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의 대동강유역이 아니라 대륙의 요서지역이었다는 것은 최근 새로 발굴된 『사고전서』 자료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인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에는 삼국시대에 선비족이 시라무렌강유역 요서에서 전연국을 건국하기 앞서 이 지역에서 최초로 건국한 나라는 고조선이었고 그 뒤를 이어 백이, 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기자조선을 지칭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떠나갔고 기자가 조선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오기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용은의 비문에 말한 요서에서의 “조선건국(朝鮮建國)”은 기자이전에 건국되어 있었던 단군조선을 가리킨 것이다. 모용은의 비문은 고조선이 한반도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중국대륙의 요서지역에서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고조선이 요서에서 건국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요서의 어느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까. 현재의 중국 요녕성 조양시를 중심으로 내몽고 적봉시, 하북성 진황도시 등 발해만 일대가 고조선의 중심지대였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기록들이 『사

고전서』에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환우기』에는 “하북도 노룡현에 조선성(朝鮮城) 유적이 남아 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노룡현은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을 가리킨다. 또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요』에는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고북구를 가는 중간에 조선하(朝鮮河)가 있다”라고 하였다. 하북성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었다면 그 옆을 흐르는 강의 이름이 조선하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조선하와 조선성이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부근에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륙의 요서가 고조선 왕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강단사학이 그동안 고조선의 중심지로 여겨 온 대동강유역에는 조선하나 조선성이 있었다는 문헌기록을 천여 년 전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곳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면 대동강이나 청천강이 조선하로, 대동강유역의 평양성이 조선성으로 고대의 어느 시기인가에는 그렇게 불려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고기』 기록과 중국의 『사고전서』 사료, 그리고 고고학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동강유역이 아닌 요서지역임이 확실하여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패수는 하북성 동쪽 조양시 서쪽에 위치해야 하며 현재 요하의 동쪽에 있는 혼하가 패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연, 진, 한의 동쪽 경계로 본 패수는 혼하가 될 수 없다.

고조선은 대동강유역의 초라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강대한 나라였다.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오늘날의 중국 하북성 남쪽 보정시의 탁현, 신성, 망도 그리고 산둥성의 동북부에서까지 출토되는 것을 본다면 고조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고조선왕국의 강역을 살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연나라의 동쪽 위치이다. 『사기』 「소진열전」에 “연나라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燕東 有朝鮮遼東)”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연나라의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면 고조선의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연나라는 서주초기 동방의 동이국가를 정벌하여 오늘의 중국 하북성 지역에 세운 나라로 서주의 동성 귀족 소공의 봉국이였다. 『사기』 「연소공세가」에는 “밖으로 만백과 안으로 제(齊), 진(晉)의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낀 가장 약소한 국가였다”라고 적혀 있다. 전국시대 종횡가로 유명했던 소진은 전국 7웅 중에 가장 약소국가였던 연나라의 강역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 임호, 누번이 있고 서쪽에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에 호타하, 역수가 있는데 지방이 2천여리쯤 된다”

소진이 연나라 군주인 문후에게 한 이 말 속에는 오늘날 연나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의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탁극탁현(托克托縣) 고성촌(古城村) 서쪽에 전국시대 운중군의 옛 성터가 보존되어 있다. 구원군은 운중군에서 좀 더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지금의 호화호특시 서쪽에 있는 포두시(包頭市) 일대가 그 지역으로서 오납특전기(烏拉特前旗) 부근에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연나라의 남쪽 국경선에 위치했던 호타하와 역수는 현재 하북성 보정시 부근에 있는 강으로 북경시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연나라의 강역이 2천리였는데 그 서쪽 국경이 지금의 내몽고 서쪽 포두시 부근이고 그 남쪽 국경이 호타하, 역수부근이었다면 당시 연나라의 강역은 현재의 내몽고 서쪽, 산서성 동쪽, 하북성 서남쪽에 걸쳐 2천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강단사학은 그동안 압록강 서쪽이 모두 연나라 땅이고 그 동쪽 대동강유역에 고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잘 못 이해해 왔다. 그러나 소진의 말에 따르면 연나라는 하북성 서남쪽에 나라가 있었고 하북성 동남쪽에는 고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연나라는 희왕(喜王) 33년에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군현제로 바꾸어 연나라가 있던 땅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5군을 설치했다. 『사기』 「진시황본기」에 진나라의 강역을 설명하면서 “땅이 동쪽으로 바다와 조선에 이르렀다(地東至海槩朝鮮)”라고 하였다. 진시황이 고조선을 멸망시켜 군현제로 바꾸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진시황이 통일천하를 이룩한 이후 동쪽강역은 기존의 연나라 땅에 한정되었으며 동쪽으로 크게 더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는 서쪽의 강역은 진제국시기보다 다소 확대되었지만 동쪽강역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것은 『사기』 「조선열전」에 “한나라 초기 기존의 고조선과의 국경은 멀어서 수비하기 어려워 요동의 고새를 수리하여 그곳으로 후퇴했다”라는 기록에 잘 설명되어 있다. 고조선의 서쪽 강역은 연, 진, 한 대를 거치면서 줄곧 하북성 동남쪽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후퇴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동북 길림성 백두산맥에서 발원한 혼하가 고조선의 서쪽 경계의 패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6) 한의 요동군으로 본 패수는 혼하가 될 수 없다.

소진의 말에 따르면 전국시대 연나라의 강역은 하북성 서남쪽에 내몽고와 산서성에 걸쳐 있었고 그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북경시 동쪽, 남쪽은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진시황시대에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5군을 설치했다. 유방의 한왕조가 들어선 이후 이 5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행정구역 상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한나라 초기 요동군의 위치상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동쪽으로의 확대가 아니라 서쪽으로의 후퇴였다. 따라서 한나라가 동쪽에 설치했던 5군, 특히 가장 동쪽에 있었던 요동군의 위치가 확인된다면 고조선과 한의 경계에 위치했던 패수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 강단사학이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한나라 때 설치한 동북방 5군의 군현이 모두 현재의 하북성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상곡군은 군청 소재지가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市) 회래현(懷來縣) 부근에 있었다. 치우와 황제의 전쟁터로 알려진 북경시 서쪽의 탁록현 일대가 그 지역이다.

어양군은 군청 소재지가 북경시민의 상수원 지역인 지금의 북경시 동북쪽의 밀운현 부근에 있었다. 고대의 어수(漁水) 즉 현재 백하(白河)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양현이라고 하였다.

우북평군은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내몽고 영성현 서남쪽에 있었고 요서군은 하북성 진황도시, 당산시 일대에, 그리고 요동군은 요서군의 동쪽에 있었다.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이 모두 하북성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서쪽,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

동군만 홀로 수 천리를 뚝 떨어져 외로운 섬처럼 압록강 주변에 홀로 위치하고 그 요동군 동쪽 대동강유역에 다시 고조선이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진제국시기 요서군은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에 있었고 요동군은 그와 인접하여 있었다. 그런데 한의 요동군은 진의 요동군보다도 오히려 서쪽으로 약간 후퇴하였다. 그렇다면 한의 요동군 동쪽에 있었던 고조선의 패수가 오늘날 요하 동쪽에 있는 혼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강단사학이 그동안 압록강 서쪽을 한나라의 행정구역인 요동군이 설치된 지역으로 이해하고 만리장성을 현재의 요하유역까지 끌어들이고 고조선의 중심지 낙랑군 조선현을 대동강유역으로 간주하고 고조선의 패수를 청천강, 압록강, 혼하로 비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고대 역사지리에 대한 개념이 결여 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7) 낙랑군 수성현으로 본 패수는 혼하가 될 수 없다.

『진태강지리지(晉太康地理志)』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여기가 장성의 기점이다(樂浪遼城縣 有礪石山 長城所起)” 라고 하였다. 『서수현신지(徐水縣新志)』 「고적(古迹)」 조항에는 “옛 장성이 서수현의 서북쪽 25리에 있다. 예로부터 진시황이 장수몽념을 무수(武遂)로 보내 장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古長城 在縣西北二十五里 舊傳秦始皇 遣將蒙恬於武遂 築長城)” 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수는 낙랑군 수성현의 전국시대 명칭이다. 『서수현지(徐水縣志)』 권1 「건치구획(建置區劃)」 〈수성향(遼城鄉)〉 조항에는 “연나라의 옛 장성이 수성의 북쪽에 있다.(有燕古長城於遼城北)” 라는 기록이 나온다.

일제 식민사학자에 의해 수성현으로 비정된 황해도 수안은 지명이 낙랑군 수성현과 ‘수’자 한 글자가 일치된다는 것 말고는, 거기에 만리장성도 없고 갈석산도 없다. 따라서 『진태강지리지』에 말한 낙랑군 수성현 · 갈석산 · 장성기점 이 세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산해관 부근의 창려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하지만 그 갈석산은 원래 왕망이 계석산이라고 명명한 것을 수 · 당 이후에 갈석산으로 고쳤다. 또한 거기에는 주원장이 서달을

시켜 쌓은 명나라 장성이 있을 뿐 진시황이 몽념을 보내 쌓은 진나라의 만리장성은 없다. 그러므로 만리장성의 기점도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역사상에서 낙랑군 수성현이 설치된 적도 없다. 따라서 하북성 창려현은 『진태강지리지』에 말한 그 낙랑군 수성현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북성 보정시 역수(易水) 유역의 서수현(徐水縣) 수성진(遂城鎮)은 우선 낙랑군 수성현과 지명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곳은 전국시대 이후 몇 차례 변동은 있었지만 줄곧 수성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갈석산(碣石山)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되는 백석산(白石山)이 있고 또 만리장성의 동단으로 여겨지는 연(燕)나라의 고장성(古長城)이 있다. 따라서 서수현 수성진은 『진태강지리지』에서 말한 낙랑군 수성현으로서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 즉 수성현, 갈석산, 장성기점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하북성 서수현 수성진이 『진태강지리지』에 말한 서진시대의 낙랑군 수성현이 확실하다고 할 때 중국 한(漢)나라와 대치했던 고조선의 서쪽 국경선은 당연히 황해도 수안이나 하북성 동쪽 창려현이 아닌 하북성 남쪽 수성진이 되게 된다.

한 무제가 서기전 108년 고조선의 서쪽변경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설치하기 이전 조선국은 요서에 그 심장부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당시에 현재의 압록강 서쪽이 아닌 하북성 남쪽 갈석산 부근, 진, 한시대의 상곡군 지역에서 한나라와 국경을 마주하여 대치하고 있었다. 한 무제는 조선의 서쪽변경인 한나라시대의 낙랑군 수성현, 현재의 서수현 수성진을 넘어와서 조선을 공격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산해경』의 기록을 통해서 고조선이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회남자』의 기록에 의해서 고조선과 낙랑군 조선현이 요서의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고조선의 서쪽국경이 어디였는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 『태강지리지』와 「서수현지(徐水縣志)」, 두우의 『통전(通典)』 등의 기록을 통해서 수나라의 상곡군 수성현, 당나라의 역주易州 수성현이 오늘날의 서수현 수성진이며 그 수성진이 바로 한(漢)나라의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중국의 한나라와 국경을 마주했던 고조선의 서쪽변경은 압록강유역이나 하북성 동쪽 창려현이 아닌 오늘날의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라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실

이 새롭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낙랑군은 오늘날의 하북성 노룡현 일대에서 발해유역을 따라 서쪽으로 서수현에 이르기까지 25개현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당산시·천진시·보정시 일대가 낙랑군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낙랑군 수성현은 낙랑군의 25개 현 중에서 가장 서쪽끝 부분에 위치한 현이었던 것이다.

낙랑군의 25개 현 중에서 가장 서쪽끝 부분에 위치한 낙랑군 수성현이 현재의 하북성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서쪽 경계에 위치했던 패수는 당연히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부근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요녕성의 요하 동쪽에 위치한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4. 맺는말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압록강이다. 압록강은 중국의 동쪽 변경과 북한의 서쪽 변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그러나 동북3성이 중국영토에 포함된 것은 요, 금, 원, 청과 같은 동이족 정권이 중원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특히 압록강이 중국의 동쪽 국경으로 고착화 된 것은 백두산 밑을 발상지로 출발한 동이족 정권 청나라가 동북방 북경을 수도로 정하여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과 관련이 크다.

서안, 낙양 등 중국의 서방을 수도로 했던 진, 한 시대에는 하북성 동북쪽은 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산동성과 하북성에 걸쳐 있는 발해를 멀리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떨 요(遼)’ 자를 사용하여 요해라 불렀고 하북성에 있는 강을 요수, 하북성 끝자락에 있는 군을 요동군이라 호칭했던 것이다.

춘추, 전국, 진, 한, 당, 송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족정권의 동북방 국경은 오늘의 하북성 동남쪽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의 요수는 현재의 요녕성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에 있던 요수였고 이때의 요서, 요동은 현재의 요녕성에 있는 요하의 동쪽과 서쪽이 아

나라 하북성에 있던 요수의 동쪽과 서쪽을 가리킨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요동군 동쪽의 고조선은 백두산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석산 아래에 있었다. 이때의 고조선의 중심지 평양은 한반도의 대동강유역이 아니라 북경 동쪽 조선하 유역에 있었다. 이때의 만리장성기점은 현재의 요하유역도 산해관 일대도 아닌 하북성 동남쪽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는 한나라 초기 한과 조선이 패수를 국경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또 한왕조의 연나라사람 위만이 패수를 건너서 고조선으로 망명해 온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마천은 패수가 한과 조선의 국경선이었다고 말했을 뿐 이 패수가 어디에 위치한 강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나라, 진나라의 동쪽 강역, 한나라시대 요동군의 위치, 낙랑군 수성현 그리고 갈석산과 조선하, 조선성, 만리장성의 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사마천이 말한 한과 고조선의 경계에 있었던 패수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압록강 서쪽 고조선의 광활한 대륙 땅을 모두 중국 땅으로 치부하고 우리역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중국의 한족들에게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해준 결과가 되었다. 또 아직도 패수가 한국사 상에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고조선은 우리역사의 뿌리이다. 고조선이 바로 서야 한국사가 바로 선다. 오늘날 한국사가 뒤틀려 있는 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조선을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는 백두산이 아니라 하북성의 갈석산에 주목해야하고 청천강, 압록강, 혼하가 아니라 북경 북쪽에 있었던 조선하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대동강유역 토성리가 아니라 난하유역 노룡현의 조선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패수는 지난날 강대했던 고조선의 진면모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패수의 정확한 위치가 청천강, 압록강, 혼하가 아니라 하북성 동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고조선의 강역은 동쪽은 한라에서 서쪽은 백두를 넘어 갈석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을 한번도 지배해본 적이 없는 변방의 초라한 반도민족이 아니라 발해를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발달민족으로 다시 자리메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은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논평자는 7가지 사례를 들어서 혼하가 고조선의 패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논평자가 보는 패수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궁금해 할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은 평자의 입장에 있고 발표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다음에 따로 평자가 생각하는 고조선 패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여기서 한마디 첨언한다면 평자는 한나라 때의 낙랑군 수성현이 고조선의 서쪽 변경이었던 지역이고 그곳은 오늘날의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과 고조선의 경계였던 패수도 이곳 보정시 수성진 부근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해 둔다.

〈참고문헌〉

『사고전서』, 『산해경』, 『회남자』, 『사기』, 『전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태강지리지』, 『진서』, 『위서』, 『수서』, 『당서』, 『통전』, 『무경총요』, 『태평환우기』, 『수경주』, 『서수현지』, 『서수현신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기자지』, 『기자실기』, 『기자세가』.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2007.

윤내현, 『고조선연구』(상), 만권당, 2015.

이병도, 『국역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0.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7.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심백강, 『조선왕조실록 중의 단군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1.

심백강, 『단군고기록 4종』, 민족문화연구원, 2001.

심백강, 『조선왕조실록 중의 기자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2.

심백강, 『기자고기록 선편』, 민족문화연구원, 2002.

심백강, 『사고전서 중의 단군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2.

심백강, 『사고전서 경부 중의 동이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3.

심백강, 『사고전서 사부 중의 동이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3.

- 심백강, 『사고전서 자부 중의 동이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3.
- 심백강, 『사고전서 집부 중의 동이사료』, 민족문화연구원, 2003.
- 심백강, 『사고전서 중의 동이사료 해제』, 민족문화연구원, 2003.
- 심백강, 『2000만에 밝혀지는 한민족의 역사, -황하에서 한라까지- 참좋은 세상, 2007.
- 심백강, 『사고전서 중의 동이관련 사료 역주』, 서울컴, 2013.
- 심백강,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낙랑』, 바른역사(주), 2014.
- 심백강,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바른역사(주), 2014.
- 심백강,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역사』, 바른역사(주), 2014.

○ 시간이 촉박하여 자료의 출전을 일일이 밝히지 못했음을 밝혀둔다.